KHIS
말산업 표준화 매뉴얼
시리즈 - 09

Korea Horse Industry Standard

경주퇴역마 승용전환조련



한국마사회

경주퇴역마 승용전환조련 표준화 매뉴얼

경주퇴역마 승용전환조련 표준화 매뉴얼

초판 2쇄 발행 / 2018년 12월 20일

저작권자 / 한국마사회
발행인 / 한국마사회
편집·디자인·제작 / 대한미디어

ISBN 978-89-5654-487-8 03490
비매품

Copyright © Korea Racing Authority. All Rights Reserved.

※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무단으로 전재하거나 복제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경주퇴역마 승용전환조련 표준화 매뉴얼

KHIS

Korea Horse Industry Standard

한국마사회

발간사

2011년 「말산업육성법」이 제정·시행된 이래로 우리나라 말산업은 생산에서 육성·유통·이용 등 제 분야의 체계 정립, 전문인력 양성 및 자격검정, 승마시설 운영 기준 마련과 관련 보험제도 도입 추진 등 다각적인 성장을 도모해 왔습니다.

그러나 말산업의 건전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어촌의 경제 활성화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속 성장과 효율적인 발전을 공고히 할 체계 구축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말산업육성전담기관인 한국마사회를 주축으로 말산업의 건전 발전 생태계 조성을 위한 표준화 플랫폼 구축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의 일환으로 말의 라이프 사이클 단계별로 필요한 표준 정보를 제공하고 각 분야별로 산재되어 있는 지식을 통합하여 말산업의 기준을 정립, 보급하고자 표준화된 매뉴얼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매뉴얼을 통해 말산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국내 말산업의 효율적 발전을 뒷받침하고자 하였으며, 말산업 표준 매뉴얼 개발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분들이 취지에 공감하고 적극 참여해 주셨기에 이 기회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매뉴얼의 지속적인 보완을 통해 우리나라 말산업을 견인할 최고의 지침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말산업 관계자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리며, 매뉴얼을 비롯한 말산업 표준화 플랫폼 구축으로 말산업이 지속 발전 가능한 산업으로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반 마련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국마사회장 김낙순



목차

Ⅰ부. 경주퇴역마 이해

1장. 경주퇴역마 개요 _ 10

1. 경주퇴역마 현황 _ 10
2. 경주퇴역마 찾기 _ 10
3. 경주퇴역마 구분 _ 11
4. 경주퇴역마 선발 _ 13

2장. 승마용 말로의 전환 _ 15

1. 조련자의 마음가짐 _ 15
2. 마체 고려사항 _ 18
3. 다양한 환경 적응 _ 21
4. 승용마 전환을 위한 기초 교육 _ 22

2018년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순치교육 동영상(QR코드) _ 24

Ⅱ부. 경주퇴역마의 조련 및 기승

1장. 조마삭 운동 _ 26

1. 조마삭 운동의 이해 _ 26
2. 조마삭 운동의 목적 _ 27
3. 조마삭 운동 장소 _ 28
4. 장구의 착용 _ 28
5. 조마삭 운동 _ 30
6. 두 줄 조마삭 운동 _ 38



2장. 마장마술 조련 _ 41

1. 기승 조련 _ 41
2. 마장에서의 초기 조련 방법 _ 42
3. 본운동 _ 43
4. 후퇴(rein back) _ 51
5. 이행(transition) _ 51
6. 반정지(half halts) _ 52
7. 방향 전환 _ 52
8. 도형 _ 52
9. 사횡보(leg yielding) _ 54
10. 측방운동 _ 55

부록

승용마 안전성 평가 _ 60

1. BRT 대회 개요 _ 60
2. BRT 대회 규정(2018년 기준) _ 62

[일러두기]

경주퇴역마의 승용마 전환은 경주마에서 은퇴한 말의 활용도 향상 및 말자원의 재활용과 동물복지 제고 차원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1천 두가 넘는 경주퇴역마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승마용으로 유통되고 있습니다. 말산업이 활성화되면서 승용마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의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기술을 매뉴얼화하여 공유 및 보급하고자 합니다.

일본은 경주퇴역마 승용전환을 위해 오랜 기간 노력해왔으며, 그 과정에서 수준 높은 기술력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승마장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은 1년에 270두의 경주퇴역마를 구매, 승용전환하여 230두를 강습에 투입하는 등 높은 수준의 전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엄격하게 선별된 말이라도 약 15%는 승용마 전환에 실패한다고 합니다. 이는 매뉴얼이 모든 말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음을 뜻합니다. 즉, 조련자별로 조련 기술과 방법이 다르고 말 각각의 특성이 다르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본 매뉴얼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알아두기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및 팁

경주퇴역마
승용전환조련
표준화 매뉴얼

I 부. 경주퇴역마 이해

- 경주마와 승용마의 차이를 이해한다.
- 승용마로 전용 가능한 말의 특성을 알아본다.
- 조련자로서의 기본자세를 숙지한다.



1. 경주퇴역마 현황

매년 국내에서 생산되는 더러브렛은 약 1,300두 정도로, 이 중 약 1,100두가 경주마로 활용된다. 렛츠런파크 서울 약 1,800두, 렛츠런파크 부산경남 1,200두로 총 3,000여 두의 경주마가 있는데, 이 중 절반에 못 미치는 1,400여 두가 매년 경주마로서의 역할을 마무리하고 제2의 생을 시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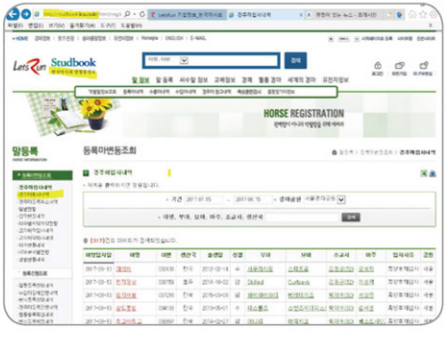
매년 배출되는 경주퇴역마 1,400여 두 중 50% 정도인 약 700두는 승용마 전환 순치조련을 시키면 안전한 승용마로 활용할 수 있다. 이 중 80%는 일반 승용마로, 15%는 장애물용 승용마로, 5%는 마장마술용 승용마로 조련하여 활용되고 있다.

[연도별 경주마 등록 및 퇴역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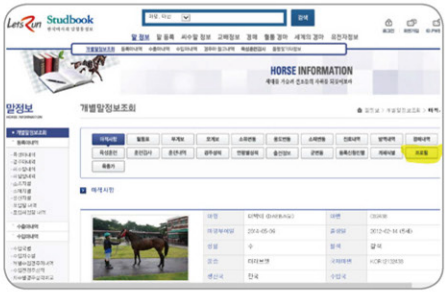
연도	등록두수	퇴역두수
2013	1,450	1,309
2014	1,523	1,210
2015	1,617	1,530
2016	1,578	1,425
2017	1,549	1,533
2018	1,572	1,567

2. 경주퇴역마 찾기

경주퇴역마는 한국마사회 말혈통정보 홈페이지에서 '경주마퇴사내역' 메뉴를 통해 찾아볼 수 있다.



※ 메뉴 위치
한국마사회 말혈통정보 홈페이지
(http://studbook.kra.co.kr)
- ▶ 말 정보
- ▶ 경주마 참고내역
- ▶ 경주마 퇴사내역



또한 특정한 경주퇴역마가 승용마로 전환하는 데 필요한 세부적인 정보는 한국마사회 말혈통정보 홈페이지의 검색창에서 마명 또는 마번을 입력함으로써 손쉽게 말에 대한 프로필(성별, 혈통, 경주성적, 진료내역 등) 및 해당 말에 대한 모든 정보를 쉽게 열람할 수 있다.

원하는 경주퇴역마를 찾았다면 해당 마주, 조련사, 말 관리사 또는 다른 말 전문가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질문하여 말 상태를 알아본다.

- 만성적인 부상이 있는가?
- 관절에 이상이 있는가?
- 체중 변화가 큰가?
- 퇴역 후 얼마나 경과했는가?
- 퇴역 사유는 무엇인가?

위와 같은 질문을 통해 말 상태를 확인한 후에는 직접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구매토록 한다.

최근에는 한국마사회 장수목장과 영천 운주산승마조련센터와 같이 경주퇴역마를 조련해서 공급하는 전문시설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들 시설에서는 승용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경매를 통해 판매하고 있다.

3. 경주퇴역마 구분

1) 마장마술용 말

말의 체형을 봤을 때 돋등마루는 어깨 뒤에 자리해야 한다. 목이 짧은 말은 마장마술용 말로 활용되지 못한다. 목 길이는 너무 길어도 좋지 않고 중간 정도여야 하며, 오히려 등이 짧은 쪽이 유리하다.

뒷다리는 잘 발달한 엉덩이로부터 쭉 뻗어 있는 것이 좋다. 이러한 체형의 말이 규

칙적이면서 균형 잡힌 4박자 평보를 걸을 수 있다. 선천적으로 앞다리를 귀밑, 목, 가슴 쪽으로 내디디면서 코너를 도는 말은 좁은 보폭으로 걸을 수 있으므로 답보변환(Flying Changes)하는 데 유리하다. 마장마술용 말은 세심하면서도 총명해야 한다. 또한 체중, 손, 다리 부조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므로 관절, 계인대 등에 문제가 있는 말은 적합하지 않다.

2) 장애물비월용 말 또는 종합마술용 말

전형적인 오르막형(업힐) 체형이어야 하며, 강한 엉덩이와 어떤 충격도 흡수할 수 있는 튼튼한 어깨를 가진 말을 골라야 한다. 어깨 위치는 높은 편이 유리하며, 쉽게 보폭을 좁힐 수 있는 말이어야 한다. 충격으로부터 다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발목이 긴 말은 좋지 않다. 발목이 길면 장애물을 넘기 위해 뛸 때 발목에 가해지는 충격이 커서 쉽게 부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폭이 한걸음에 3.5~4m로 가볍게 장애물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국내 또는 국제 경기에 참가하려면 연령이 최소 7세 이상이어야 한다.

장애물비월에 적합한 말은 대범하고 지구력이 강해야 한다.

3) 레저용 승용마

성격이 온순하고, 보폭이 한걸음에 2m 이내인 말이 좋다. 재갈을 물리거나 굽 파기를 할 때에도 안전하게 목과 다리를 내주거나 오랫동안 승마에 길들여진 15세 이상의 말이 적당하다. 참고로 일본 최대 승마클럽인 크레인사의 2017년 연령별 승용마 재적 현황을 보면 16세 이상의 승용마가 35%를 점유하고 있다.

[일본 승마클럽 크레인 승용마의 연령별 점유비]

연령 구분	점유비(%)
5세 미만	6
6~10세	29
11~15세	30
16~20세	20
21~25세	11
26세 이상	4

4. 경주퇴역마 선발

경주퇴역마 중 승용 전환 순치를 통해 승용마로 이용할 수 있는 말은 약 50% 정도다. 아래의 조건들에 비추어 우수한 말을 선발토록 한다.

1) 연령으로 판단

① 발육 중인 말은 승용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② 근과 골이 발달하지 않은 말은 승용으로 이용하기 어려움

③ 2세 말은 관절에 무리를 주기 때문에 승용마로 활용할 수 없음

④ 상반기에 출생한 3세 말은 대체로 승용마로 활용 가능

⑤ 가능하면 4세 이상인 말을 승용으로 활용

2) 성격으로 판단

① 물거나 차는 악벽 유무

② 사람이 다가갈 때 거부하거나 위협하는지(마방에서 꺼낼 때)

③ 몸을 만지면 위협 또는 긴장하는지(굴레를 씌울 때)

④ 다리를 들어 올릴 때 거부하는지(굽을 손질할 때)

⑤ 불안해하거나 지나치게 사람을 의식하는지

3) 마장에서 판단

① 마방에서 수장대로 이동을 거부하는지

② 조마삭 운동을 제대로 하는지

③ 승마·하마 시 가만히 서 있는지

④ 전구·몸통·후구의 비율이 이상적인지(1:1:1)

⑤ 모색 등 상품성이 높은지

4) 기승해서 판단

① 다리 부조에 몸이 경직되는지

② 다리 부조에 순종적인지

③ 고삐 사용 시 급격하게 정지하는지

④ 회전 신호에 반대 방향으로 도망가는지

⑤ 한눈파는 것이 심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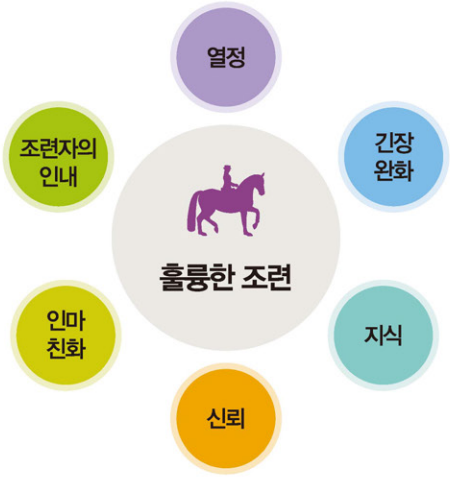
⑥ 기승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지

⑦ 파행을 하는지

5) 질병력으로 판단

호흡기 질병마, 골절마, 건염이나 인대염을 앓았던 말은 치유되기까지 수개월에서 1년 이상 소요되므로 수의사의 조언을 듣고 구매토록 한다.

1. 조련자의 마음가짐



경주퇴역마를 승용마로 전환하기 위해 순치조련을 하려면 그 말이 어릴 적부터 경주마로 활동할 때까지 가지고 있던 나쁜 기억을 없애야 한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인마(人馬) 친화에 힘써야 한다. 특히 경주퇴역마 전환 순치 시 조련자는 필수적으로 인내심을 가지고 경주퇴역마를 대해야 한다. 아울러 조련자는 지식과 열정으로 말에게 신뢰를 얻어내야 한다. 인마 친화를 통해 조련사와 말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승용 전환 순치조련이 가능함과 동시에 말의 실력을 향상시키는 포석이 된다.

전환 조련 단계에서는 말의 긴장완화를 위해 경직성을 없애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경마장에서 바로 새로운 승용마 조련시설로 이동한 대부분의 경주퇴역마는 매우 불안정하고 신경질적이므로 말들이 서서히 환경 변화(새로운 마사, 낯선 사람 등)에 적응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사항에 주의하면서 새로운 승용마 조련시설로 이동한 지 2~3일 후부터 차분하게 조련을 시작하도록 한다.

한편 경주퇴역마를 조련시설로 옮겨온 이후 최소 한 달간은 경주마의 날뛰는 습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도 티모시 등 화본과 건초만 자유 섭식하게 한다.

1) 말 성격을 고려한 조련 원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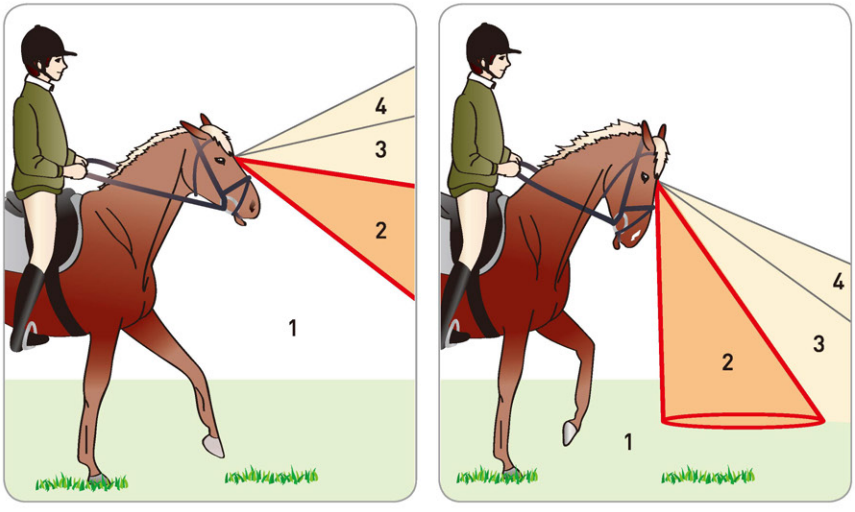
- 조련자는 말에게 심리적 또는 육체적으로 필요 이상의 부담을 주지 말아야 한다.
- 조련자는 기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말의 감정을 포함한 기본적인 동물심리학적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
- 조련자는 인내심과 일관성을 갖춰야 하며, 절대 말에게 위압적인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 조련자는 말의 장점을 파악하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말과의 교감을 최우선 과제로 한다.

- 조련자는 장기적인 목표와 우선순위를 가지고 조련에 임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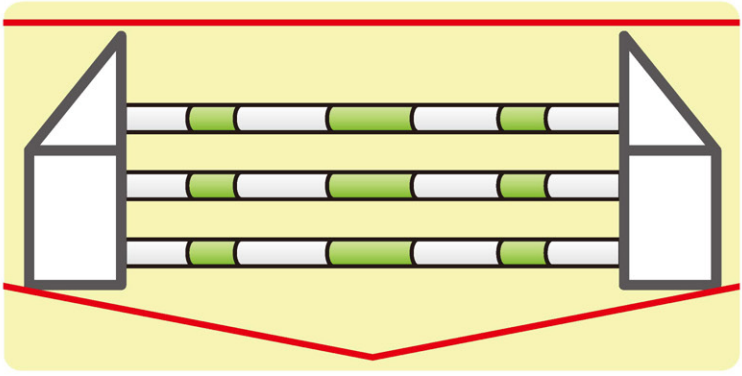
2) 조련자가 알아야 할 기본사항

- 조련자는 말이 무리 속에서 습득한 천성을 인지하고, 말과 사람 간에 리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 말과 조련자의 신뢰는 기본적인 요소다. 말은 조련자와의 신뢰관계가 확립되지 않는 한 절대 조련자의 명령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 조련자와 말의 커뮤니케이션은 부조나 부부조(음성, 칭찬, 체중), 보상(사료, 각설탕, 당근 등을 주는 것)으로 성립된다. 조련을 시작하면서 말이 사료 등을 받아 먹는 것은 조련자와 말 사이에 가장 중요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 말과 조련자의 신뢰관계란 말이 부조에 익숙해지기까지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주는 것으로 성립한다.
- 말은 원래 무서움을 많이 타므로 조련자는 말이 새로운 것에 서서히 익숙해지도록 해야 한다. 만약 조련 도중 말에게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특히 말이 장애물을 넘는 경우 불안이나 두려움을 느낄 만한 일이 발생했을 때 무리하게 다음 장애물을 넘게 하지 말고, 말에게 나쁜 기억이 남지 않도록 안정을 취하게 해야 한다.
- 말은 기억력이 좋은 동물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말이 나쁜 경험이나 부정적인 감정을 기억에서 지우는 데는 매우 오랜 시간이 걸린다.
- 말이 인간을 접할 때 느끼는 이미지는 안전, 보호 등이어야 한다.
- 말의 감각 중 가장 발달한 감각인 후각은 조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는 않지만, 만약 싫은 냄새나 특정한 냄새(담배나 화학물질)가 나쁜 기억을 상기시키면 말은 순종하지 않게 된다.
- 말은 청각도 발달해 있으며, 귀를 소리 나는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으므로 머리를 돌리지 않더라도 소리의 진원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 청각이 예민하므로 조련 중이거나 마방에서 필요 이상으로 소음을 내서는 안 된다.
- 말은 시각이 그다지 발달해 있지 않은 동물이다. 피사체에 대해 조절 가능한 안구를 가진 사람과는 달리, 말의 안구는 피사체에 대해 초점을 맞출 때 머리 전체를 움직여야 한다. 예를 들면, 먼 곳을 보기 위해 초점을 맞출 때는 머리를 들고, 가까운 물체를 보기 위해 초점을 맞출 때는 머리를 숙인다.
- 말의 촉각은 입술, 수염 등 신체 전반에 걸쳐 충분히 발달해 있다. 이를 이해하는 것이 조련 전반에 중요하다.

- 섬세한 조련자는 꼬리의 움직임, 콧구멍 움직임, 땀 흘리는 상태를 종합해서 말의 심리상태를 파악한다. 대표적으로 눈을 통해 말의 정신상태와 컨디션을 알 수 있다. 또한 공포심, 부드러움, 사려 깊음 혹은 불신감 등도 눈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귀의 움직임으로도 말의 정신상태를 잘 이해할 수 있다. 귀가 뒤로 납작한 상태로 접혀 있을 때는 강한 불신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말의 방어본능을 나타낸다. 쾌활하게 서 있는 귀는 적극성의 표현이고, 말이 조련자나 기승자에게 협력하겠다는 신호다.
- 말이 만족스럽게 콧바람을 날리고 꼬리를 좌우로 흔들고 있을 때는 신체 근육이 이완되고 편안함을 느끼며, 자발적으로 움직이겠다는 신호다.
- 말이 긴장한 채 꼬리를 높이 들고 있는 경우는 흥분해 있거나 뭔가를 두려워하고 있다는 증거다.
- 말이 운동하고 있을 때 땀을 흘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긴 하나 흥분하거나 공포를 느꼈을 때도 땀을 흘린다. 이 경우 맥박과 호흡수가 상승한다. 흥분이나 공포로 하얀 땀이 배어 나오면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높으므로 말의 움직임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콧등 각도가 지면과 45°일 때는 2의 부분을 확실하게 양눈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부분의 위, 아래인 3과 1의 부분은 어렴풋하게 보인다. 나아가 그 위의 4 부분은 말이 볼 수 없다. 콧등 각도가 지면에 대해 수직일 때, 다시 말해 마장마술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것처럼 콧등이 지면에 대해 직각일 때 1, 2 부분은 확실히 보이며, 3 부분은 희미하게 보이고 4 부분은 맹점이 된다.



장애물을 향해 다가갈 때는 말이 거리를 판단할 수 있도록 머리를 자유롭게 상하로 움직여 장애물을 잘 보고 인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따라서 고삐를 고정하여 말 머리가 움직일 수 없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기승자는 고삐에 대해 부드러운 주먹을 유지하여 말이 머리를 상하로 자유롭게 움직이면서 장애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조련자는 항상 조용하고 침착하게 말과 접해야 한다.
- 말은 꾸준한 반복학습을 통해 지식을 습득하므로 조련자는 말에게 올바른 행동에 대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이 좋다.
- 칭찬 또는 징계 등의 교육적인 지도는 말의 수행 능력에 대한 직접적인 조치가 되어야 한다.
- 특별한 이유나 시간제한 없이 말에게 벌을 주면 말을 겁먹게 하여 조련사와 말 모두에게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
- 다른 동물들과 마찬가지로 말도 본능적으로 반응하므로 동물의 심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조련해야 한다.

2. 마체 고려사항

1) 마체 구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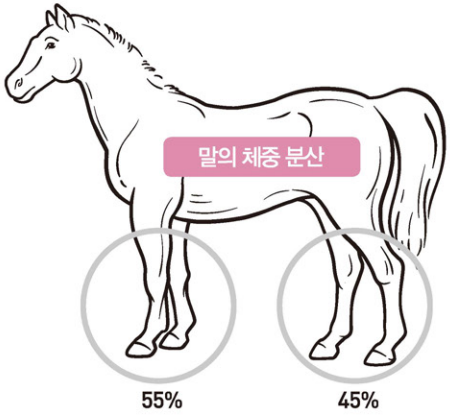
모든 조련자는 말이 어떻게 균형 잡힌 운동을 하는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말의 머리는 자유자재로 신축하는 목과 목 근육으로 지지되고 있는데, 목은 지렛대 역할과 앞다리 전체를 지탱하는 역할도 한다. 말이 똑바로 서 있는 상태인 경우, 말

의 중심은 대략 흉골 높이 정도에 있고, 몸통 중앙 정도에 위치한다.

특히 주의해야 할 사항은 목과 정수리에서 척추에 이르는 등 부분의 역할이다. 흉부 이외에 흉추와 천추는 등날개 형태로, 흉추 15번째까지는 뒤를 향해 경사져 있다. 16번째는 수직으로 서 있고, 그 뒤의 척추는 머리를 향해 전방으로 경사져 있다. 등골은 다리 역할을 하고, 앞다리와 뒷다리가 기둥 역할을 한다. 이처럼 말은 다른 동물에 비해 큰 짐을 운반할 수 있는 등 구조를 가지고 있다.

2) 말의 다리



앞에서 기술한 대로 말이 서 있는 상태일 때 중심은 앞다리 가까운 곳에 있다. 말의 체중을 10으로 볼 때 앞다리는 5.5 정도의 체중을 지탱하고 있으며 뒷다리는 4.5 정도의 체중을 지탱한다.

앞다리는 정지 시나 운동 시에도 뒷다리보다 체중을 더 지탱하고, 뒤로부터 앞으로 향하는 전진기세에 대한 브레이크 역할도 담당한다.

뒷다리는 강력한 추진력을 만들고 등골을 통해 그 추진력을 전구 쪽으로 보낸다.

앞다리와 뒷다리는 신체 구조에 따라 서로 완전히 다른 역할을 수행한다. 뒷다리는 추진력을 전달하기 위해 골반·척추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만, 앞다리는 견갑골 사이의 흉곽에 신축성 있는 근육들로 채워져 있어 비교적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고 브레이크처럼 작용할 수 있다.

목과 등 근육은 정수리에서 꼬리, 후구의 절반까지 뻗어 있는 근육의 연결체로서 조련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후구에서 시작되는 전진기세가 등으로 효과적으로 전달되는지 여부는 근육의 신축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

어린 말에게 뜻하지 않은 중량부담은 등 근육을 긴장시켜 근육통이나 근육 결림의 원인이 된다. 이는 조련하는 말뿐만 아니라 모든 단계의 말에게 적용된다. 좋은 조련이란 준비운동을 통해 말의 목과 등을 유연하게 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말이 올바른 등 움직임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3) 조련 정도의 판단

기본적인 조련의 목적은 쾌적하게 운동하고, 순종적이고 적극적이며 유능한 승용마를 만드는 것이다. 조직적인 조련 프로그램을 편성하여 말이 가진 본래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면 각각의 상황에 맞는 말로 조련할 수 있다.

조련은 항상 계획적이어야 하는데, 서로 완전히 똑같은 말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모든 말에게 같은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조련 일정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언제나 말의 차이점에 맞춰 조련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조련 정도의 판단은 아래와 같은 몇 가지 단계로 나눌 수 있다.

- 말과 익숙해지고 친근해지도록 순응시키는 단계
- 후구의 추진력을 발달시키는 단계
- 후구의 중량부담을 발전시키는 단계

그리고 위의 단계가 완성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인트를 통해 판단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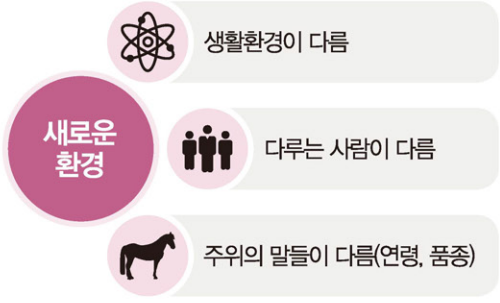
- 보조(리듬, 균형)
- 긴장 완화(이완)
- 재갈받이(contact)
- 탄력(전진기세, 약동감)
- 직진성(straightness)
- 수축(collection)

조련자는 위의 단계와 각 포인트를 단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로 연계되어 있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각 항목 모두 다음 항목의 조련을 실시할 때 필요한 기술이지만, 어느 한 가지 항목을 습득했다고 해서 조련이 끝났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이 모든 단계는 사실상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판단 포인트를 적용하여 말을 조련해야 한다.

3. 다양한 환경 적응

1) 환경 적응



경마장에 있다가 새로운 조련시설로 바로 들어온 말은 마치 갓 전학 온 초등학생과 같다. 따라서 새로운 환경을 접하게 된 말들은 환경에 빨리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초 1~2주는 같은 사람이 말 손질 및 장안, 운동을 담당하는 것이 가장 좋으며 말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가능하면 창문에서 마장이 보이는 곳으로 마방을 지정하여 말이 앞으로 조련시설에서 해야 할 일을 볼 수 있게 하면 매우 도움이 된다. 신규 조련시설 적응 기간은 말에 따라 약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된다.

새로운 환경에서 만난 사람들이 무서운 적도 아니고 위협을 가하는 사람도 아니라는 사실을 이해시키기 위해 말을 접할 때 먹이(당근, 각설탕, 말 비스킷, 펠릿 사료) 등을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주면 매우 효과가 있다.

동물은 먹이를 주는 사람을 동료로 인식하므로 말에게 먹이를 주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된다.

먹이를 항상 동일한 장소에 넣어두면, 사람이 그 장소에 손을 대는 것만으로 말에게 먹이를 준다는 사실을 학습하게 하여 더욱 효과적이다.

마방에서 사람을 경계하고 뒤로 돌아서는 말에게도 화를 내지 말고 먹이로 유인할 필요가 있다. 나중에 승용마로 이용하려면 마방에서의 동작이나 습관도 예의 있게 교육해야 한다.

알아두기

마방에서 적대행위를 드러내는 말(무는 동작과 뒷발로 차는 동작 등의 위협)은 다루기가 어렵다. 이런 말들은 조련이 진행되면 좀 더 적대행위가 늘어난다. 전환 순치를 하더라도 초급 조련자의 연습용으로는 부적합하므로 이런 말들은 초기에 승용 전환용으로 고르지 않도록 한다.

2) 사료 급여 방식 변환

경주퇴역마 구입 후 한 달간은 체중의 1~2% 정도에 해당하는 목초를 급여하는데, 일반적으로 티모시(대략 하루에 6kg)를 준다. 티모시가 아니더라도 영양성분과 말의 기호성을 고려하여 다른 종류의 화본과 목초를 급여해도 무방하다.

첫 일주일간은 아무런 조련도 하지 않고 조련시설 내부 이곳저곳에 끌고 다니면서 편하게 새로운 환경을 익히게 한다. 또한 이 기간 동안 경주로에서 질주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이기 위해 곡물사료와 배합사료는 주지 않도록 한다.

약 2주 동안 30~40분 정도 조마삭 운동을 하면서 목 상부의 판상근이 목 하부의 흉골두근처럼 발달하는 것을 확인한 후, 기승하면서 조련할 때 보상으로 곡물사료나 배합사료를 주도록 한다. 즉, 새로운 기술을 조련시키면서 잘 따라오도록 곡물사료나 배합사료를 급여토록 한다. 그런 다음 다시 마방으로 돌아가면 티모시만 급여한다.

잘 조련되어 다시 새로운 기술을 조련시킬 때 또다시 곡물사료나 배합사료를 추가해준다. 이런 식으로 경주퇴역마에게 티모시만 급여하다가 새로운 기술을 적용시키는 초기 단계에만 곡물사료나 배합사료를 주어 힘을 비축하게 한 후 조련시킨다. 운동량에 따라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경우 곡물사료나 배합사료는 하루에 1kg 정도를 급식하며 점차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지만, 최대 5kg을 넘지 않도록 조절한다.

4. 승용마 전환을 위한 기초 교육

대략 2주간의 조마삭 운동을 실시하면서 경주마 시절에는 사용하지 않던 상부 목 근육(판상근: 머리를 위에서 매달고 있는 근육)을 발달시킨다. 경주마는 머리를 쭉 펴서 보폭을 늘리도록 두부(頭部)를 받치고 있는 흉골두근이 발달해 있다. 경주마의 경우 흉골두근 70%, 판상근 30%로 발달해 있는데, 승용마 전환 순치조련을 하는 경우는 흉골두근 50%, 판상근



50%로 발달하도록 조련한다. 즉, 2주간의 조마삭 운동을 통해 판상근을 강화시켜 승용마로서 머리의 굴요가 쉽게 이뤄지도록 한다. 이렇게 콧등이 지면에 대해 90°가 되도록 함으로써 경주마처럼 질주하려는 능력을 상실토록 한다. 이렇게 굴요가 되어야 후지를 내디딜 때 발생하는 전진기세를 엉덩이 ➡ 등 ➡ 목 ➡ 머리 ➡ 입 ➡ 재갈 ➡ 고삐 ➡ 주먹 순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

알아두기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순치조련을 위한 조마삭 운동의 핵심은 머리를 들어 올리는 판상근의 발달이다. 경주마는 하부의 흉골두근이 70%, 상부의 판상근이 30% 정도로 발달해 있는데, 승용마는 흉골두근 50%, 판상근 50%로 발달하도록 만드는 것으로, 상부의 머리를 들어 올리는 판상근을 단련시킨다.

- **판상근**: 척추의 등 쪽에 있으며, 목 두께나 목 등선을 만드는 근육. 판상근은 정수리 부분의 제3~제5 경추에서 시작하여 돋등마루까지 이어진다. 판상근은 머리를 들어 올리고, 목을 뻗고, 목을 양옆으로 구부릴 때 움직이는 주요 근육이다.
- **상완두근**: 경추의 옆 또는 약간 배 쪽에 뻗어 있는 근육. 상완두근은 두개골 상부와 상관골 상부를 연결한다. 상완두근의 주요 기능에는 머리와 목을 숙이고, 목을 옆쪽으로 구부리고, 앞다리를 앞쪽으로 내딛는 움직임이 있다.
- **흉골두근:** '흉골하악근'이라고 불리는 경우도 있다. 흉골두근은 목 아랫부분의 오목하고 길게 파인 줄 하부에 뻗어 있는 근육으로 흉골과 턱뼈를 연결한다.

2018년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순치교육 동영상

QR코드를 스캔하시면 2018년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순치교육 동영상을 회차별로 보실 수 있습니다.



2018년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순치교육 개요

- **교 육 명:** 2018년 경주퇴역마 승용전환 선진기술(일본) 도입 교육
- **교육주관:** 한국마사회
- **교육시기:** 2018년 3월 ~ 11월
- **교육장소:** 렛츠런파크 서울 실내·외마장
- **교육강사:** 일본 승마클럽 크레인 강사 세리마치 요시다카, 오카 시게미츠, 다케시 이하마, 카오루 이와고

경주퇴역마
승용전환조련
표준화 매뉴얼

Ⅱ부. 경주퇴역마의 조련 및 기승

- 원형운동 요령을 습득한다.
- 기승운동 요령을 습득한다.



1. 조마삭 운동의 이해

조마삭 운동은 조련자와 말의 안전을 도모하면서 경주퇴역마에게 리듬, 균형감각, 달리는 자세 등을 가르칠 수 있다. 경주마의 습성상 사람이 타면 흥분하고 처음부터 기승해서 조련하면 이러한 습성을 없애기 힘들므로 초기에는 조마삭을 통해 조련을 시작한다. 조마삭 운동으로 말이 확실한 움직임을 이해하게 되면, 추후 훈련 과정들을 빠른 속도로 습득할 수 있다.

조마삭 운동은 말을 지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기승을 위한 심신의 유연성을 길러 이후의 단계를 익히기 위한 준비 또는 보완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조마삭을 통



알아두기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순치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말을 이해하기 위한 몇 가지 사항을 당부하고자 한다.

말은 초식동물이므로 경계심이 많고 낯선(익숙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매우 무서워한다. 특히 더러브렛은 웜블러드에 비해 감수성이 높아 접하는 환경과 사람, 그리고 주변 말들에게 매우 예민하게 반응한다. 이는 초등학교 저학년생이 새로운 학교로 전학 갔을 때의 상황과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새로운 집, 주변 환경, 친구들, 선생님 등 전부 새로운 환경에 맞닥뜨린 것과 같다. 조련자의 경우 교사 같은 역할이므로 경주퇴역마 조련자는 갓 전학 온 초등학교 저학년생을 대하듯 말을 다뤄야 한다.

또한 조련에 들어가기 전에 말에게 손으로 먹이를 주는 연습을 많이 해야 한다. 경주마의 경우 손으로 먹이를 받아먹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조련 과정에서 손으로 먹이를 주는 것은 매우 중요하므로 그것에 익숙해지도록 만들어야 한다.

조련자는 먹이량, 운동량, 운동 내용 등을 고려하여 전반적인 계획을 짜는 것이 중요하다. 조련 프로그램을 만들 때 트레이닝의 전반적 목표와 단계별 목표 등을 세운 뒤, 말이 어느 정도 그 단계의 목표를 달성했을 때는 지체 없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 너무 서두르거나 너무 지체하면 발전하지 않으므로 말이 어느 단계에 이르렀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안목을 키우는 것이 중요하며, 이는 많은 경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노하우이다.

더러브렛은 자극과 통증에 매우 약한 동물이다. 또한 사람이 올라타는 것만으로도 매우 긴장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람이 올라타도 말이 정신적으로 평온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조련 시 조련자의 의도대로 말이 따라주지 않는다고 너무 혼내거나, 올라타서 과격한 부조를 사용하는 것은 좋지 않다. 말마다 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여러 말을 접해보면서 이전에 다뤘던 말과 어떻게 다른지 차이점을 찾아보고, 또 이에 맞춰서 조련을 진행하며 스스로 감을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조련자는 이를 반복하면서 자신만의 노하우를 축적해갈 수 있을 것이다.

조마삭 운동은 말을 조련하는 데 매우 유용한 운동이지만 초보자가 잘못된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사람과 말에게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항상 유의해야 한다.

해 고삐에 대한 반응을 파악하고, 목 근육 중 먼저 쓰는 근육이 어디인지를 파악하여 (목의 아래 근육을 많이 쓰면 굴요가 되지 않고 목을 들게 됨) 이를 교정하는 것이 조마삭 운동의 첫 단계다. 그러므로 조련자는 말 상태를 주의 깊게 판단하여 적절한 조마삭 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승 전까지 조마삭 운동은 대략 2주에서 한 달 정도 소요되며, 4세 미만의 어린 말은 더 걸릴 수도 있다. 조마삭을 통해 재갈에 대한 거부감을 없애고, 조련자의 음성을 통해 정지·평보·속보·구보로 이행하는 연습을 한다. 조마삭이 고삐 역할을 하며 고삐로 정지시킬 때 말의 반응, 즉 말의 굴요가 유지되는지를 평가해서 조마삭 조련을 끝내고 기승 조련으로 넘어가게 된다.

조마삭 단계		
	소요시간	약 2주~한 달
	이행연습	출발 ➡ 정지 ➡ 평보 ➡ 속보 ➡ 구보
	평 가	굴요 평가

알아두기

굴요(屈撓)란?

말과 기승자 간 재갈을 통해 연결된 상태로 말이 정확한 재갈을 물면서 후구가 들어오는 상태를 뜻한다. 활 모양으로 말의 머리를 내려주는 것을 의미하며, 굴요에는 목의 굴요, 턱의 굴요, 후구의 굴요가 있다.

2. 조마삭 운동의 목적

① 조련자와 말의 친화성을 높여준다.

② 음성이나 신호 및 롱레인을 이용하여 부조의 기본을 가르친다.

③ 마체의 유연성 및 활발하고 규칙적인 발걸음을 만들어준다.

④ 기승 전 기본적인 체력을 만들어주며, 휴양마 및 기승할 수 없는 말을 대상으로 운동을 시켜주는 데 사용한다.

3. 조마삭 운동 장소

처음 조련 시 실내 원형마장이나 실내마장이 없는 경우 벽으로 둘러싸인 곳에서 실시한다. 외부와 차단된 곳에서 조련하면 조련자와 말 사이에 집중도 및 신뢰감 향상에 도움이 된다.

4. 장구의 착용

복대를 채우기 전에 말과 함께 걷다가 서다가를 반복하면서 말이 말을 잘 듣는지 확인한다. 잘했을 때는 사료나 각설탕, 당근 등을 주어 칭찬한다. 이렇게 말을 적응시킨 후 밴디지 또는 프로텍터(아대) ➡ 벨부츠 ➡ 패드 ➡ 조마삭 ➡ 복대 ➡ 굴레 ➡ 사이드레인 순으로 착용한다.

1) 조마삭 운동용 복대

① 사이드레인을 연결하는 고리가 3~5개 달린 상복대를 사용한다.

② 반드시 더러브렛용(450~600㎏용)을 사용한다.

③ 처음에는 세게 매지 않도록 하며, 조마삭 복대를 채울 때는 안장깔개를 사용한다.

조마삭 복대를 채울 때는 너무 꽉 조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복대가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만 가볍게 조인다. 복대를 채우면서 사료 등을 주며 말과의 친화도를 높인다. 복대를 채우고 남는 끈 부분은 여분의 고리에 느슨하게 끼워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이는 말이 넘어졌을 때 등 응급사태 발생 시 바로 풀리도록 하기 위함이다.

2) 조마삭(롱레인)

일반적으로 길이 7~9m로 가볍고 튼튼한 재질의 나일론 줄을 사용하며, 양쪽 끝은 고리를 연결한다.



3) 긴 채찍

① 말에게 지시하기 위한 필수 도구로, 말이 놀라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사용한다(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조마삭을 들고 있는 손의 반대편 손에 채찍을 들고 손목을 이용하여 사용한다.

③ 초보자는 말이 없는 곳에서 몇 번 연습한 다음 사용하여 말이 놀라지 않도록 한다.

말이 채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확인한다. 먼저 채찍을 말 몸에 기대어둔 채로 사료를 주도록 한다. 잘 받아먹으면 이번에는 한 손으로 말 눈을 가리고, 채찍으로 말 몸을 쓸어본다. 무서워하지 않고 잘 적응하면 사료를 준다. 조마삭에서의 채찍은 체중부조와 같은 역할을 한다. 따라서 절대로 말을 때리거나 해서는 안 되며, 위압을 주는 용도로 그쳐야 한다.

4) 밴디지, 프로텍터(아대), 벨부츠

① 충돌로부터 건을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다리 보호 밴디지나 프로텍터를 채운다.

② 경주퇴역마는 건이나 근이 손상되어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밴디지를 한 후 프로텍터를 채운다.

③ 가능하면 딱딱한 프로텍터를 사용해 말의 부상을 방지토록 한다.

④ 초기에는 벨부츠를 반드시 착용하여 발목과 제관부의 부상을 방지토록 한다.

5) 굴레 착용

코끈은 손가락 3개가 들어가도록 약간 여유를 두고 채운다. 재갈 앞쪽의 재갈 고정 끈은 손가락 5개가 들어가도록 여유 있게 채운다. 단, 입이 너무 벌어지도록 해서는 안 된다.

6) 사이드레인

① 사이드레인은 고삐의 연결과 말의 목이 과도하게 안쪽 또는 바깥쪽으로 꺾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한다.

② 조련 단계에 따라 안쪽과 바깥쪽의 길이를 조정한다.

사이드레인을 처음부터 너무 짧게 채워서는 안 된다. 처음 사이드레인을 채울 때는 말의 자연스러운 목 형태에 맞추거나 약간만 짧게(5~10㎝) 채워야 하며 좌우 길이는 똑같게 한다. 처음 사이드레인을 채우고 조마삭 운동을 할 때는 사이드레인을 채운 다음 사료를 잘 받아먹는지 확인한다. 초기에는 사이드레인을 복대의 아래쪽에 고정하여 말이 머리를 못 들게 하고 사이드레인이 지면에서 수평을 유지하도록 조련한다. 단계에 따라 사이드레인의 체인을 올리되 목의 굴요를 통해 계속 수평이 유지되도록 한다.

7) 재갈

① 전환 순치조련을 시작하기 전에 수의사에게 구강검사를 의뢰하여 반드시 날카로운 이빨들을 평탄하게 갈아주어야 한다.

② 재갈은 보통 때의 재갈보다 재갈대가 굵고 단순하며 중간이 둘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사용한다(달걀형 재갈이나 D형 재갈).

재갈은 평소보다 재갈대가 굵은 것으로 장착하면 좋다. 사이드레인이 작용해 재갈이 입에 강한 자극을 줄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두꺼운 재갈대를 사용하여 입에 부드럽게 작용토록 한다. 그리고 사료 등을 주면서 재갈을 문 이후에도 사료를 받아먹을 수 있는지 확인한다. 사료를 받아먹는 말은 아래턱 쪽으로 위턱을 대는데, 바로 이 동작이 재갈을 받는 동작과 같다. 즉, 아래턱을 향해 위턱을 댄다는 것은 목을 굴요시키는 것이 된다. 다시 말해 재갈이 입 아래로 내려가면 그것을 물기 위해 목이 굴요가 되고, 반대로 아래턱을 사용해 위턱에 붙이려면 목을 쳐들게 된다.

5. 조마삭 운동

1) 조마삭 운동 실시 방법

조마삭 복대, 사이드레인, 채찍에 저항을 보이지 않으면 마장 중앙에서 조마삭 운동을 시작한다. 반드시 조련자의 지시대로만 움직이도록 하고 말이 제멋대로 달려나가지 않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조마삭 운동은 왼쪽 방향(반시계 방향)으로 먼저 진행한다.

알아두기



사람과 말의 안전을 위해 사흘 이상 오래 휴식한 말은 바로 조마삭 운동을 시켜서는 안 된다. 먼저 끌기운동 등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준 다음에 조마삭 운동을 실시토록 한다. 그렇지 않고 곧바로 조마삭 운동을 실시하면 말은 힘이 넘쳐 뒷발질을 하는 등 날뛰어서 슬관절 등이 다칠 수 있다.

조련자는 왼손에는 균등하게 접은 조마삭을 쥐고 오른손에는 조마삭용 채찍을 들어 말의 비절에 부드럽게 대서 말이 앞으로 나아가도록 유도한다. 조금씩 조마삭을 길게 놓아주면서 채찍을 사용하여 말이 앞으로 걸어나가도록 한다. 조마삭이 적당한 길이가 될 때까지 말을 앞으로 보내고 동그란 원을 그리기 시작하면 평보로 운동을 시작한다.

왼쪽 운동 시 조련자는 왼손에 조마삭을 쥐고, 운동 방향이 바뀌면 조마삭을 쥐는 손도 바꾼다.

조마삭을 잡을 때는 고삐를 쥘 때처럼 검지의 두 번째 관절 지점을 엄지로 위에서부터 눌러 쥔다. 말이 갑자기 튀어나갈 경우를 대비해 조마삭 끝부분이 아닌 약간의 여유를 두고 쥐도록 한다.

말이 같은 장소를 돌기 시작했다면 조련자도 가능한 한 원 중앙에 위치해 말의 속도에 맞춰 움직이도록 한다. 조마삭을 쥐는 손은 말의 입 높이와 같은 정도의 위치에 놓고, 팔꿈치는 펼치지 않고 접어둔다. 조마삭은 상시 말의 입과 가벼운 연결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조마삭용 채찍은 다른 손으로 쥐고 필요한 전진기세를 만든다. 조마삭용 채찍은 늘 말의 비절 방향을 향하고 있어야 한다.

▸ 조마삭 운동 TIP

① 먼저 왼쪽 평보부터 시작하고 진행과 정지를 가르친 다음에 음성으로 평보와 속보를 가르친다.

② 줄을 물결치도록 하여 원 바깥쪽으로 점차 멀리 돌도록 유도한다. 이 단계에서는 최초 2~3일간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평보, 속보에 익숙해지도록 한다. 조련자의 의도대로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③ 양보한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말은 마장마술용 말로, 목이 짧고 양보를 잘하지 못하는 말은 장애물 비월용 말로 판단한다.

④ 조마삭 구보는 경주마로서 익혔던 구보의 습관을 지우는 것이 조련의 시작이다. 기존 보폭을 조마삭 운동을 통해 3m 이내의 보폭으로 줄여야 한다. 승마 고객의 안전을 위해 승마용 말의 구보 보폭은 2~2.5m 정도가 적당하다. 기승하여 2~2.5m 보폭의 구보를 하며, 부조에 대한 조련을 실시한다. 이후에는 말의 용도(마장마술, 승용, 장애물)에 따라 조련 내용이 달라진다.

경주마 주행에 익숙한 경주퇴역마는 사이드레인을 채운 평보, 속보가 매우 힘들지 모른다. 하지만 이렇게 하면서 머리를 지탱하는 근육인 판상근을 단련시켜나간다. 말이 주위에 반응해 날뛰더라도 조련자는 침착하게 평보, 속보를 하도록 조련을 지속해야 한다. 말이 제멋대로 조련자 쪽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하며, 잘했을 때는 조련자가 제적 쪽으로 가서 사료를 주면서 칭찬해주도록 한다.

Q&A

Q 경주퇴역마가 뒷발질을 하거나 저항하며 일어서려고 할 때는 어떡하나요?

A 경주퇴역마는 목을 길게 하거나 지면에 대해 콧등을 수직으로 하여 평보와 속보를 해본 적이 거의 없다. 만일 근육 등에 불편함을 느껴 뒷발질을 하거나 저항할 때는 "워~워" 소리로 달래면서 지속적으로 평보와 속보를 시켜야 한다. 그렇게 하면 말은 이런 경우에도 앞으로 걸어나가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 말이 흥분하더라도 절대 큰 소리로 야단치거나 강제로 다루려고 해서는 안 되며 안정을 취하도록 하면서 평보와 속보를 지속시킨다. 콧등이 지면과 직각을 이루어 정지, 평보, 속보 진행을 원활하게 잘한다면 이후부터는 기승을 해도 좋다.



알아두기

갈기 바로 아래 판상근을 키우는 것이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순치조련에서 조마삭 운동을 하는 목적이다. 조마삭 운동을 하다 보면 갈기 바로 아래 판상근이 잘 발달하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마장마술용 말로 적합하다. 간혹 위의 판상근과 아래 흉골두근을 번갈아 가면서 잘 쓰는 말이 있는데, 이런 말은 장애물비월용 말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무리 조마삭 운동을 해도 판상근이 발달하지 못해 굴요를 하지 못한다면 그냥 연습용 말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조련자는 말을 활발하게 움직이도록 하여 말이 재갈을 능동적으로 받으면서 발걸음도 경쾌해지는지를 확인한다. 다리를 들어 올릴 때 어깨를 사용해서 무릎이 먼저 올라간 다음 무릎 아래가 나오는 말은 마장마술용 말로 적합하다. 무릎과 다리를 동시에 움직이는 말은 보행이 좋아지기 힘든 말이다. 전진기세가 부족해 보이면 말을 지속적으로 앞으로 내보내는 것이 중요하다.

[준비단계]

- 말이 필요 이상으로 긴장하지 않도록 한다.
- 사료를 주거나 사이드레인을 채울 때는 뺨끈을 잡고 한다.
- 복대에 채운 사이드레인보다 아래쪽으로 말 목과 사이드레인이 내려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복대 높이를 올렸으면 사이드레인 길이는 짧게 해야 한다.
- 사이드레인이 채워진 말은 넘어지면 스스로 일어나지 못하므로 사이드레인의 여분 끈은 유사시 즉시 풀 수 있도록 정리한다.

[운동단계]

- 채찍을 쥘 때는 말이 잘 보이는 위치에서 쥐도록 한다.
- 머리를 너무 낮추거나 들지 않도록 하고, 너무 낮추면 머리를 들도록 유도한다.
- 어디로 도망갈까 탐색하지 못하도록 한다.
- 혓소리는 필요할 때만 내도록 한다.
- 콧등이 지면과 직각을 이루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도록 한다.
- 방향을 바꾸고 정지도 시키면서 조련자의 지시를 잘 받는지 확인한다.
- 조마삭 조련을 오래하면 말이 거부할 수 있으므로 30분 이상 지속하지 않도록 한다.
- 제대로 된 자세를 유지했을 때는 칭찬해준다.
- 떨어져 있더라도 음성부조로 말을 조련시킬 수 있도록 한다.
- 초기에는 오른쪽과 왼쪽을 번갈아 가면서 조련하지 않도록 한다.
- 오른쪽과 왼쪽 중 어느 쪽을 잘하는지 조마삭 운동으로 파악하여 기승 시 이용한다.

[정리단계]

- 정지 시 조마삭 끈을 약간 위로 들어 올린다.
- 언제나 같은 장소에서 세우고 사료를 준다.

2) 채찍 사용

조마삭용 채찍은 채찍을 쥐는 손이 작은 원을 그리듯이 전방에서 후방, 후방에서 전방을 향해 사용하며, 채찍의 끝이 밑에서 위를 향해 가볍게 튕겨지도록 한다. 말의 집중력이나 순종성을 유지하게 위해 채찍 끝이 말의 비절 상부를 살짝 스치도록 한다.

만약 말이 원 안쪽으로 들어오는 타입이라면, 말 어깨를 향해 채찍을 사용한다. 또 조마삭을 흔들면 '파도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 신호에 의해 말은 바깥으로 향하게 된다.

채찍은 어떠한 경우라도 지면에 두어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 사이드레인을 조절하거나 복대를 조일 때에도 항상 채찍을 옆구리에 끼고 작업해야 한다. 지면에 놓여 있는 채찍을 말이 밟을 수도 있고, 조련자가 채찍을 집으려 하면 말이 놀랄 수도 있기 때문이다.

3) 부조

조마삭 운동에서 가장 도움이 되는 부조는 음성 사용이다. 같은 지시를 부드러운 톤의 생생한 목소리로 반복해서 사용하면 조마삭과 채찍 부조를 더욱 효과적으로 만든다.

조마삭 운동에 익숙해져 있는 말은 음성만으로도 정지하고, 평보·속보·구보도 용이하게 한다. 음성은 인마 간의 친목을 도모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는 추후 훈련을 원활하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평보에서 속보로 보법 변환을 할 때는 "속보"라고 음성 호령으로 전달하고, 필요하다면 채찍을 조금 올려 말의 비절에 부드럽게 접촉시킨다. 조련자는 보법을 구보로 이행 시 조마삭을 반복하여 잡아당겨 말의 걸음걸이를 짧게 한다. "구보"라는 음성 호령과 함께 채찍 부조를 주어 말 입에 약간 강한 신호를 보내 구보 출발을 하도록 해야 하며, 속보의 속도가 점점 빨라져 구보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조마삭 운동을 제대로 하는 말은 "구보"라는 음성 호령과 채찍을 드는 것만으로 평보에서 구보 출발을 즉시 할 수 있게 된다.

말의 보행 스피드를 떨어뜨릴 때는 음성 호령을 사용해야 한다. 음량을 줄여서 호령을 천천히 사용하고("소~옥 보"라고 하는 것처럼) 조마삭을 살짝 당기면 말은 구보에서 속보로 보법을 변경한다. 평보로 할 때도 같은 요령으로 호령을 사용한다. 채찍은 보법 변경을 할 때 추진력이 필요할 경우에만 사용하도록 한다.

조마삭 상의 제적이 정해지면, 말은 그곳을 행진해야 한다. 조마삭 운동의 진행 방향을 바꿀 때도 말은 제적 위에 정지해야 한다. 조련자는 조금씩 조마삭을 접으면서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균등한 원을 그리도록 하면서 말에게 다가가야 한다. 조련자는 방향을 바꿀 준비를 하고 채찍을 사용하여 말이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유도한다.

조마삭 운동은 항상 평보에서 시작하여 평보로 끝나야 하며, 최종 마무리 평보 때는 사이드레인을 느슨하게 해주거나 벗기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조마삭 운동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보법 변경을 자주 하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익숙해지면 진행 방향도 자주 동일하게 바꿔줘야 한다. 이를 반복함으로써 마체가 이완되고 등이 유연해진다. 이것이 조마삭 운동의 최종 목적이다.

▪ **조마삭 운동의 목적:** 말의 이완과 유연한 등 만들기

4) 사이드레인을 이용한 조련

사이드레인은 가죽끈으로 중간에 고무고리가 끼워져 있고 복대와 상복대에 부착하는 걸쇠가 붙어 있다. 다른 쪽 끝부분은 재갈고리에 연결되도록 한다. 사이드레인은 승용마의 머리가 위치해야 할 영역을 알려주는 도구이므로 경험이 많은 사람이 사용해야 한다.

초기

처음에는 평상시 말이 편하게 걸을 때의 머리 위치보다 약간 짧게 사용한다. 그런 다음 조금씩 말의 콧등이 지면에 대해 직각을 이루도록 지속적으로 사이드레인 길이를 줄임과 동시에 상복대 고리 연결 부분은 높여나간다. 궁극적으로는 기승자의 주먹 위치, 즉 상복대 맨 위까지 올리도록 한다.



알아두기

사이드레인을 채운 말은 방향 전환을 하기 힘들다. 따라서 말을 세울 때는 항상 제적상에서 세우고 사람이 말에게 다가가도록 하며 말이 사람 쪽으로 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제적으로 되돌릴 때 사이드레인을 채운 상태에서 방향을 전환해야 하는 등 사고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적응기

어느 정도 조련에 익숙해지면 두 줄 모두 균등한 길이의 사이드레인을 사용한다. 말 어깨와 같은 높이의 사이드레인을 롤러에 장착해서 사용한다. 이때 말의 콧등은 수직선보다 다소 전방으로 나와 있어야 한다. 머리와 목의 위치가 높은 말은 사이드레인을 낮은 위치에 부착한다. 반대로 머리나 목의 위치가 낮은 말은 사이드레인을 높은 위치에 매단다. 조련이 진행됨에 따라 수축운동 연습으로 조마삭을 사용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사이드레인을 높은 위치에 장착한다.



알아두기

어떠한 경우라도 사이드레인이 너무 짧아서는 안 된다. 길이 조절을 잘못하면 입이나 등에 저항을 초래하는데, 그 결과 등이 긴장되거나 어깨 움직임이 어색해지고 바람직하지 않은 목의 하방 근육이 발달하게 된다.

굴레와 사이드레인을 사용하여 조마삭 운동을 할 경우, 조마삭은 내방 재갈고리에 장착해야 한다.

조련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수축운동을 시작할 때 조마삭을 내방 재갈고리를 통해 정수리로 넘겨서 외방 재갈고리에 장착하는 경우가 있다. 이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조련자가 조마삭을 쥔 손으로 말 입의 미묘한 감각을 느껴야 한다. 즉 기승하지 않고서도 기승한 것처럼 조마삭으로 말을 평보, 속보, 구보까지 조련시킬 수 있어야 한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작은 원에서도 원활하게 구보를 할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즉 전지는 무릎을 굽혀 높이 올리도록 하고, 후지는 배 중앙까지 힘차게 내디딜 수 있도록 활발한 전진기세를 만들도록 한다.



[재갈을 물지 못하고 거부하는 나쁜 사례]

조련자는 조마삭 운동을 처음 하는 말에게 사이드레인을 채울 때는 마체가 쭉 펴지면서 머리가 낮아지게 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그리고 사이드레인의 길이는 말의 머리 높이와 조마삭 적응도에 따라 달라지며, 항상 재갈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 정상적으로 마체가 신장되고 머리가 굴요된 모습은 말이 머리를 내렸을 때 콧등이 수직선보다 약간 앞으로 나온 상태이다. 이는 침착성, 추진력, 일정한 보조(pace)에 의해 생겨난 유연성으로 이뤄진다. 이때 말은 정신적·육체적 긴장을 풀고 있어 걸음이 활기차다. 가능하면 메트로놈※ 소리에 맞춰서 정확한 보행을 하도록 한다.

또 하나의 중요한 사항은 재갈이 항상 말 입과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재갈이 연결되어 있으면 말이 머리를 내리더라도 재갈이 항상 자신의 입속에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 이렇게 되면 말은 재갈에 순응하는 것을 배우게 되고 스스로 재갈을 찾아 물게 되는데, 그 모습은 재갈을 잘근잘근 씹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이럴 때일수록 조련자는 음성과 채찍을 조화롭게 사용하여 말이 항상 추진력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

※ **메트로놈** 음악의 빠르기를 측정하는 도구로, 일정한 간격으로 소리를 울려 박자를 알린다.

말이 규칙적으로 자유롭게 속보운동을 지속하게 되면 신체적 균형이 쉽게 흐트러지지 않고, 재갈을 입에서 뱉어버리는 일도 없다. 하지만 재갈을 찾아 물 때 전진기세가 부족하면, 말은 곧 재갈 무는 것을 포기하거나 재갈 무는 것과는 다르게 재갈에 의지하는 나쁜 버릇을 몸에 익힐지 모른다.

초기 조마삭 단계에서 말이 재갈을 물지 않고 뱉는 것을 배우게 되면 남은 조련 기간은 전혀 의미가 없고 말의 긴장만 가중시킨다. 이럴 때는 조마삭을 길게 늘어뜨리거나 말과의 연결을 끊어버리면 말은 본능적으로 머리를 내리며 균형감각을 잃지 않고 마체의 긴장을 풀게 된다.

6. 두 줄 조마삭 운동

경주퇴역마에 대한 약 2주간의 전환 순치조련 마지막 단계로 두 줄 조마삭 운동을 실시한다. 이 운동의 목적은 기승하여 고삐를 쥐고 말을 조종하는 것처럼 두 줄 조마삭을 통해 직접 말을 조련시키는 것이다. 단, 반드시 숙련된 사람이 해야 한다.

1) 두 줄 조마삭 운동의 장점

① 말에게 좌우 균형을 이루어 재갈을 바르게 물도록 가르친다.

② 좌우 양방향을 동일하게 실시하여 균형 있는 마체 발달을 도모한다.

③ 직접 기승하지 않고도 고삐 부조를 익힐 수 있다.

④ 말의 재갈 감각을 테스트할 수 있다.

⑤ 후지로의 무게중심 이동을 확실하게 조련할 수 있다.

⑥ 평보, 속보, 구보를 원하는 대로 조련할 수 있다.

2) 두 줄 조마삭 연결 방법(왼쪽 방향 조련 시)

① **오른쪽 재갈고리:** 조마삭 복대의 제일 높은 고리 ➡ 주먹

② **조마삭 복대의 상단 고리:** 왼쪽 재갈고리 ➡ 주먹



[두 줄 조마삭 모습]

사이드레인은 좀 더 길게 연결하여 자유롭게 목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두 줄 조마삭 중 오른쪽 끝은 오른쪽 재갈고리 ➡ 조마삭 복대의 제일 높은 고리 ➡ 주먹으로 연결하고, 왼쪽 끝은 조마삭 복대 상단부 ➡ 왼쪽 재갈고리 ➡ 주먹으로 연결한다.

3) 순서 및 방법

① 먼저 한 줄 원형운동을 실시한다.

② 두 줄 착용 시에는 먼저 안쪽의 조련자가 안쪽 재갈고리에 줄을 연결한다.

③ 다음에는 다른 조련자가 바깥쪽 고리에 다른 줄을 걸고 후구 쪽으로 넓게 돌아 서서히 말의 후구에 접촉을 시도하면서 롱레인을 비절 부위에 걸치도록 한다.

④ 바깥쪽 줄을 완전히 넘긴 후 안쪽 줄을 잡은 조련자가 원형마장 내에서 평보로 끌기운동을 한 바퀴 실시한다.

⑤ 말이 진정된 후에는 두 명의 조련자 모두 원형마장 중앙에 위치하여 각자의 줄을 잡고 두 줄 조마삭을 실시한다(필요 시 채찍을 사용할 수 있다).

⑥ 말이 안정되면 한 명의 조련자가 두 줄을 모두 잡고 조련을 실시하는데, 말과 조련자가 삼각형을 이루도록 자세를 잡는다.

4) 두 줄 조마삭 운동 시 유의사항

활기차고 힘이 센 말은 오전, 오후 두 번에 걸쳐 3~4일간 실시하면 조련 효과를 높일 수 있다. 유의할 사항은 한 번에 너무 많이 해서 말을 피곤하게 하면 안 된다. 적당히 여러 번에 걸쳐 조련하는 것이 좋다.

이와 같이 조마삭 두 줄을 양쪽 재갈고리에 연결하여 평보, 속보, 구보를 시키면서 기승 시 말의 머리 움직임, 발 움직임 등을 파악한다. 아울러 후지를 배 중앙으로 확실히 내디딜 수 있고 무게중심이 어느 정도 후구 쪽으로 이동했다면 기승조련 단계로 넘어간다.

알아두기

마장마술 조련은 일본 크레인의 경주퇴역마 승용 전환 순치기술이 아닌 일반적인 말의 보법과 관련된 기본 조련 내용이나, 승용전환조련 시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매뉴얼에 수록하였다.

1. 기승 조련

원형운동 조련이 완료되면 기승하여 기본마술 순치, 장애물비월과 마장마술 조련을 하게 되는데, 기승조련 초기에는 기본마술 조련을 실시한다.

대개 기승 조련은 4~10개월 소요되며 둔감화와 부조 반응 조련을 실시하게 된다. 조련은 하루에 30~45분 실시하며, 조마삭 운동이 필요한 경우 이 운동시간 안에 포함하여 실시한다.

처음 기승 조련을 할 때는 조금씩 서서히 조련 시간을 늘려가야 한다. 이제 막 기승 조련을 시작한 어린 말이나 경험이 부족한 조련자일 경우는 안전 및 부상 방지를 위해 통상보다 조련 시간을 짧게 한다.



1) 워밍업(유연 운동)

처음에는 자유평보로 마장 제적을 따라 걷다가 대각선, 윤승, 기본적인 도형운동을 하며 3종 보법 및 각종 보법 변환을 조합해 마체의 유연성을 키운다. 최종적으로 속보 또는 구보에서 머리와 목의 신장 운동을 통해 마체의 유연성과 재갈받이를 확인한다.

2) 본운동(기술적 향상)

정지, 평보, 속보, 구보 등 단계별 조련을 실시하면서 말이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복한다. 그러나 마체가 긴장되어 있다면 긴장하지 않도록 마체의 유연성을 키우는 것을 우선하며, 특히 어린 말인 경우에는 유연성을 갖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3) 정리 및 진정(긴장 완화 및 호흡 고르기)

속보 또는 구보로 머리와 목의 상태를 확인하고 평보로 이행한다. 그리고 고삐를 늘려 자유평보를 실시하면서 말의 호흡을 고르게 한다. 다만, 기승자는 고삐를 완전히 놓아주면서도 올바른 자세 유지와 다리 부조를 잊어서는 안 된다.

2. 마장에서의 초기 조련 방법

경주퇴역마 승용마 전환 순치조련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말의 중심을 전지에서 후지로 이동하는 것이다. 경주퇴역마는 전지에 무게중심이 실리기 쉽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조련 시 체중과 균형의 이동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후구에 체중이 골고루 실리게 해야 한다.

말의 유연성 강화를 위해 말이 안정된 시점에서 운동을 지속해주며, 경주마 조련으로 인해 전지에 쏠려 있는 마체의 중심을 후구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후구 이동을 위해서는 정확한 재갈받이를 통해 말을 아치 모양으로 만들어 후구가 많이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즉, 말의 굴요를 통해 후구로 무게중심을 이동시킨다.



알아두기

어린 말을 운동시킬 때는 일반운동보다 약 1.5배 빠르게 하여 자가 근육을 생성해야 한다.

말 조련의 핵심은 리듬, 균형, 유연성이다.

추진력이란 체력과 속력으로 구성된 에너지를 말한다. 승마용 말은 기승자를 태우고도 움직일 수 있는 충분한 체력이 있어야 한다. 균형감이 없는 말은 평보에서 구보로 이행할 때 추진력이 없고 보폭만 늘이는데, 이런 말이 구보로 이행하기 위해서는 두세 발자국 속보를 해야 한다. 반면에 추진력이 센 말은 똑바로 선 상태에서도 즉시 구보로 이행할 수 있다.

먼저 규칙적인 보폭은 말과의 조화, 일치감을 느끼게 한다. 리듬이 규칙적이라는 것은 말의 보폭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며, 보폭을 늘릴 때도 똑같은 리듬을 유지해야 한다. 보폭을 줄일 때는 말의 다리가 더 높게 올라가서 역동감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말의 템포는 느린 것이 좋으며, 만약 템포가 빨라지려고 하면 반정지(half halts)를 통해 리듬을 회복토록 한다. 주의할 점은 보폭을 늘이면 속도가 급격히 빨라질 수 있는데, 이런 경우 서서히 부조를 사용하여 말이 급해지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 **초기 조련 방법**: 후구에 체중 싣기 / 추진력 기르기 / 규칙적인 보폭 리듬 유지

3. 본운동

평보, 속보, 구보를 단계별로 연습한다.

1) 평보

마장에서 제적운동 및 대각선운동을 비롯한 워밍업이 끝났다면 평보를 연습한다. 고삐를 짧게 쥐고 메트로놈 리듬에 맞추어 정확하고 활발한 4절도로 걸은 후 정지시킨다. 이것을 여러 번 반복한다. 말을 정지시킬 때는 어깨를 뒤로 하여 팔이 아닌 주먹, 즉 고삐를 잡은 손가락 조작만으로 정지시킨다. 팔을 사용하여 고삐를 뒤로 잡아당기거나 체중이 위로 뜨면 절대 안 된다. 이처럼 상체의 가벼운 움직임을 위해서는 다리 부조가 확실해야 한다.

말 다리의 움직임을 엉덩이로 느끼면서 음성 부조로 이행연습을 충분히 하고, 이후 8자 또는 속보-구보 이행을 응용하여 시도해보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이다.

평보-정지-평보-정지 운동이 잘되면 8자 운동도 시도한다.

평보에는 중간평보, 수축평보, 신장평보, 자유평보가 있으며 순차적으로 실시한다.

① 보통평보

평상적인 보폭으로 일반적으로 분당 110m를 이동하며, 규칙적인 발걸음이 특징이다. 4절도의 굽소리가 명확하게 구분되어야 하며, 균형을 잃고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② 중간평보

명료하고 단정하되 딱딱함이 없는 중등도로 신장시킨 평보다. 말은 '재갈받이' 상태에서 활력이 넘치지만 느긋하고 확실한 평보로 진행하며, 후지는 전지의 착지점보다 앞을 내디딘다. 기승자는 말의 머리와 목의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허용하면서도 말의 입과 가볍고 부드럽고 안정된 연결을 유지한다.

알아두기

말이 입을 벌리고 다니면 강한 연결이므로 부드럽게 손을 사용해보자.

③ 수축평보

말은 계속 '재갈받이' 상태로 목을 세워 아치를 그리고, 확실한 셀프 캐리지※를 보이면서 전진한다. 콧등마루는 수직에 가깝고, 기승자의 주먹과 말의 입 사이에 가벼운 연결이 유지되어야 한다. 모든 관절이 더욱 현저하게 구부러지기 때문에 보폭은 중간평보보다 좁지만, 다리는 더욱 높이 올라가게 된다. 수축평보는 더욱 힘찬 걸음을 나타내지만, 보폭은 중간평보보다 짧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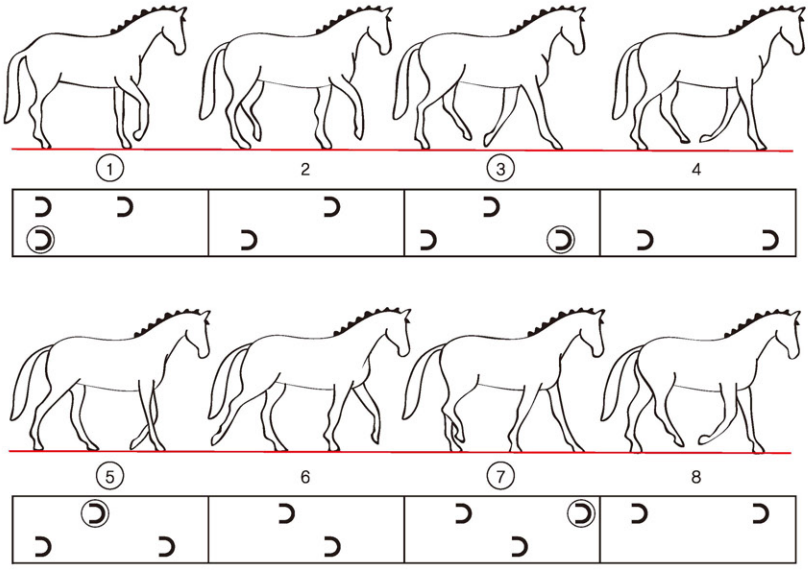
④ 신장평보

말은 성급하지 않고 걸음의 단정함을 해치지 않으면서 가능한 한 보폭을 늘인 움직임을 보인다. 후지는 확실하게 전지의 착지점보다는 앞을 내디딘다. 기승자는 말 입과의 연결이나 정수리의 컨트롤을 유지하고, 말의 머리와 목을 (앞쪽 아래로) 길게 뺀다. 콧등마루는 분명히 수직선보다 앞에 있어야 한다.

⑤ 자유평보

자유평보는 여유로움이 있는 보법으로, 말이 머리와 목을 내려 스트레칭할 수 있도록 완전한 자유를 준다. 후지가 전지의 착지점보다 반드시 앞에 위치하면서 지면에 닿는 각도와 보폭의 길이로 자유평보를 평가한다.

※ 셀프 캐리지(self-carriage) 라이더 손의 도움 없이 말이 스스로 수축하고 뒷다리 중심으로 균형을 잡는 것



평보는 8개의 단계로, 4박자 리듬으로 전진하는 4절도의 보법이다[동그라미 안의 숫자는 절도/박자(beat)를 나타낸다].

자유평보 중에 '긴 고삐로 머리와 목의 스트레칭' 조련을 병행하여 실시한다. 이 연습은 말의 '철저한 복종(thoroughness)'을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으로 말과의 균형, 유연성, 복종, 이완을 확인할 수 있다. '긴 고삐로 머리와 목 스트레칭' 연습을 정확히 실시하려면, 기승자는 말이 서서히 앞쪽 아래로 머리와 목을 신장시키는 것에 맞추어 고삐를 늘려주고, 말의 목이 앞쪽 아래로 신장됨에 따라 그 입은 대개 어깨를 지나는 수평선상에 이른다. 기승자의 주먹과는 부드럽고 일관된 연결을 유지해야 한다. 걸음은 리듬을 그대로 유지하고, 말이 후지를 잘 내딛고 어깨는 가벼운 상태가 되도록 한다. 고삐를 다시 잡을 때 말이 입이나 정수리로 반항하는 일 없이 연결을 받아들여야 한다. 또한 연습 중간중간 긴 고삐로 머리와 목의 스트레칭을 통해 폐에 신선한 공기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2) 속보

속보는 '2절도' 보법으로 자유롭고 활발하며 규칙적인 걸음을 보여주어야 한다. 속보의 좋고 나쁨은 전반적인 인상, 즉 발걸음의 규칙성과 탄력성, 약동감과 율동감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자질은 유연한 등과 충분히 받쳐주는 후구에 기인한다. 또 모든 종류의 속보는 같은 리듬과 자연스러운 균형을 유지할 수 있어야 가능하다.

속보에는 보통속보(working trot), 보폭 늘이기(lengthening of steps), 수축속보(collected trot), 중간속보(medium trot) 및 신장속보(extended trot)가 있다.

① 보통속보

수축속보와 중간속보 사이의 보폭으로, 말의 조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수축운동을 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지 않은 경우의 보법이다. 적절한 균형을 나타내고, '재갈받이' 상태에 있는 말은 규칙적이고 약동적인 걸음과 비절의 양호한 움직임을 가지고 전진한다.

② 보폭 늘이기

4세마에게는 '보폭 늘이기' 조련을 시행한다. 이것은 보통속보와 중간속보 사이의 걸음으로, 중간속보를 실행하기에는 말의 조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단계일 때 시행한다.

③ 수축속보

말은 '재갈받이' 상태에 있고, 목을 높게 하여 아치를 그리며 전진한다. 비절을 들어올려 충분히 내딛고, 양쪽 어깨를 더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된다. 완전한 셀프 캐리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반드시 활기찬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 다른 속보 걸음과 비교해 말의 보폭은 짧지만, 탄력성과 율동감은 뒤처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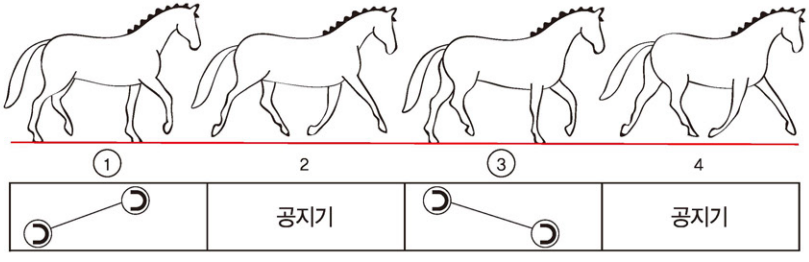
④ 중간속보

중간속보는 신장속보에 비해 중간 정도 늘임의 보폭이지만, 신장속보보다 '원숙한(rounder)' 속보다. 말은 서두르는 일 없이 분명하게 보폭을 늘이고, 후구로부터의 추진력으로 전진한다. 말은 수축속보나 보통속보 때에 비해 머리를 수직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내밀고 머리와 목을 약간 낮추는 것이 허용된다. 발걸음은 반드시 일정해야 하고, 전체 움직임은 균형이 잡혀 생동감이 있어야 한다.

⑤ **신장속보**

말은 가능한 한 최대한의 보폭을 유지한다. 서두르지 않고 후구의 강력한 추진력으로 보폭을 최대한 늘인다. 기승자는 말의 정수리 위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말이 다리를 쭉 뻗을 수 있도록 신장시켜 지면을 확실하게 밟고 전진토록 한다. 전지는 진행 방향의 연장선상에 착지해야 한다. 전지와 후지의 움직임은 신장시켰을 때와 같이 앞으로 쭉 뻗어야 한다. 말의 움직임 전체가 충분히 균형 잡힌 것으로, 수축속보로의 이행은 후구에 더 많은 체중을 실으면서 부드럽게 진행한다.

말의 등선은 목, 등, 엉덩이의 라인을 말한다. 말이 등선을 수축시키면 엉덩이는 낮아지고, 다리는 몸 아래에서 더 깊게 내디딘다. 등, 목은 높게 올리고 입은 몸 쪽으로 잡아당겨 머리가 이완된 모습이 된다. 콧등은 지면에 대해 직각을 이룬다.



속보는 4개의 단계로, 2박자(beat) 리듬에 맞춰 전진하는 2절도 보법이다[동그라미 안의 숫자는 절도/박자(beat)를 나타낸다].

[보행별 거리]

구분	분속(m)	시속(km)
평보	110	6.6
속보	220	13
구보	340	20
습보	1,000	60
장애물비월	350	21
크로스컨트리	550	33

3) 구보

구보는 '3절도'의 보법으로, 예를 들어 오른발 구보의 경우는 왼쪽 뒷다리 ➡ 왼쪽 대각선(좌전지와 우후지가 동시) ➡ 오른쪽 앞다리 순서로 착지한 후 네 다리가 한순간 공중에 떴다가 다음 걸음이 시작되면서 앞으로 전진한다.

구보는 언제나 경쾌하고 율동감이 있으며, 규칙적인 발걸음으로 주저함 없이 전진해야 한다. 구보의 좋고 나쁨은 전반적인 인상으로 평가한다. 즉 발걸음의 규칙성과 경쾌함, 상향경향(uphill tendency), 유연한 재갈받이, 활발한 비절의 움직임 여부가 중요하며, 반대 방향의 구보로 이행 시에도 같은 리듬의 걸음걸이가 유지되는지, 말의 균형이 자연스러운지 등으로 판단한다. 말은 항상 직선상에서는 마체를 똑바로 하고, 곡선에서는 선에 맞춰 정확하게 굽혀야 한다. 구보에는 보통구보, 보폭 늘이기(lengthening of steps), 수축구보, 중간구보 및 신장구보가 있으며 이를 순차적으로 연습한다.

① 보통구보

수축구보와 중간구보 사이의 보법으로, 말이 아직 수축운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조련이 충분히 되지 못한 상태다. 말은 '재갈받이' 상태이면서 자연스럽게 균형 잡힌 움직임을 보이고, 균등하고 경쾌하며 활달한 걸음과 양호한 비절의 움직임으로 앞으로 전진한다. '양호한 비절의 움직임'이라는 표현은 후구의 활달한 움직임이 가져오는 추진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② 보폭 늘이기

생후 만 4세가 된 말을 대상으로 '보폭 늘이기' 조련을 시행한다. 이것은 보통구보와 중간구보 사이의 걸음으로, 중간구보를 실행하기에는 말의 조련이 충분히 진행되지 않은 단계일 때 시행한다. 즉, 보통구보와 중간구보 사이의 변형된 발걸음이다.

③ 수축구보

말은 '재갈받이' 상태에 있고, 목을 높이 쳐들고 아치를 그린다. 양쪽 어깨는 더욱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게 되고, 셀프 캐리지와 상향경향을 발휘하게 된다. 말의 보폭은 다른 구보 걸음에 비해 짧지만, 탄력성과 율동감은 뒤처지지 않는다.

④ 중간구보

보통구보와 신장구보 사이의 보법이다. 서두르지 않되 후구의 추진력으로 명료하게 보폭을 늘여 전진한다. 말은 수축구보나 보통구보 때보다 머리를 수직보다 조금 더 앞으로 내밀고 머리와 목을 약간 낮추는 것이 허용된다. 발걸음(스트라이드)은 균형이 잡히고 경쾌해야 한다.

⑤ 신장구보

말은 가능한 한 넓은 보폭을 유지하며, 서두르지 않고 보폭을 최대한 늘인다. 후구의 강력한 추진력을 받고 침착성 있는 경쾌한 직진성을 유지한다. 말은 정수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도 골격을 신장시켜 지면을 확실히 밟고 전진한다. 말의 움직임 전체가 충분히 균형 잡힌 것으로, 수축구보로의 이행은 후구에 더 많은 체중을 실으면서 부드럽게 진행한다.

⑥ 반대구보

반대구보는 왼쪽 원운동 시 의도적으로 오른쪽 구보를 하게 하는 것으로, 일종의 유연성 운동이다. 반대구보 조련 시에는 반드시 균형과 직진(straightening)운동이 함께 시행되어야 한다. 원운동 시 말의 목을 바깥쪽으로 가볍게 구부린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하며, 말의 척추가 원의 진행 방향에 따라 구부러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⑦ 단순 답보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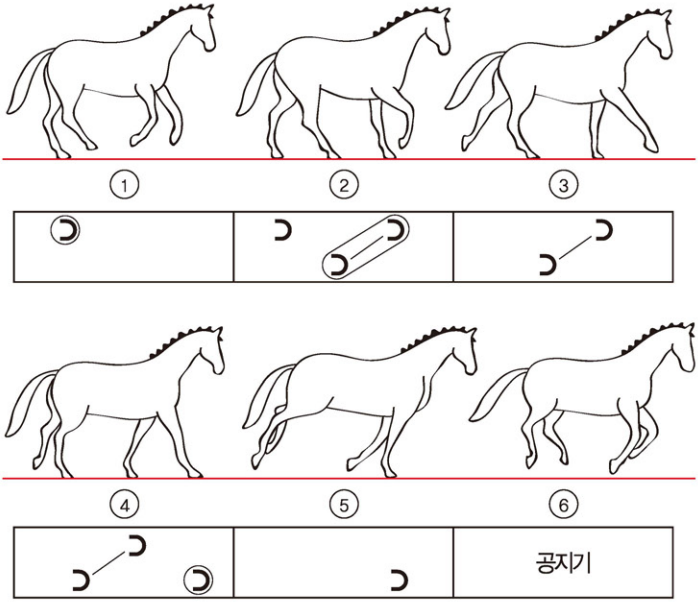
구보로 달리던 말이 평보로 이행하여(3~5보) 반대편 구보로 변환되는 운동이다. 명확한 수축운동이 되지 않은 말은 기승자에게 반항할 수 있으므로 재갈받이와 이행운동이 잘되어 있을 때 진행하도록 한다.

알아두기

답보변환을 조련할 때 유의사항

부조가 다른 경주마의 경우 앞으로만 달려나가려는 습성이 있으므로 무리하게 답보변환을 하기보다는 천천히 지면 횡목 연습을 통해 익혀나가는 것이 좋다. 하나의 횡목을 지면에 두고 지나갈 때 기승자의 중심을 반대로 두면서 반대구보 부조를 주어 말의 무게중심을 이동시킴으로써 자연스러운 답보변환을 유도한다.

답보변환에서는 경쾌함과 흐름 및 내디딤을 제한하거나 멈추게 하지 않도록 충분한 추진력을 유지해야 한다.



구보는 6개의 단계로, 3박자(beat) 리듬에 맞춰 전진하는 3절도의 보법이다[동그라미 안의 숫자는 절도(beat)를 나타낸다].

※ 경주퇴역마의 경우 앞으로 내달리려는 습성이 많이 남아 있으므로 조련자의 인내가 필요하며, 조련이 되어 있는 말과 달리 훈계는 꼭 필요할 경우에 적정 시점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훈계는 타이밍이다. 지나간 시점에 훈계하면 오히려 말에게 반항심을 키워주는 계기가 될 것이며, 훈계하기 전에 말이 잘못했는지 조련자의 실수인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알아두기

보법	1분간 메트로놈 수
평보	90~95
속보	150~165
구보	85~90

4. 후퇴(rein back)

후퇴는 공지기 순간이 없는 2절도 리듬의 사대지(대칭되는 다리)를 후방으로 이동시키는 운동이다. 한 쌍의 사대지가 다른 한 쌍의 사대지와 번갈아 후퇴를 실시하며, 전지는 후지와 같은 제적을 내디딘다. 후퇴하는 동안 말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의지를 유지하면서도 '재갈받이' 상태에 있어야 한다.

5. 이행(transition)

보법변환이나 동일 보법 내의 보법변환은 지정된 표기 지점에서 정확히 행해져야 한다. 율동감(평보 제외)은 보폭 또는 운동이 바뀌는 시점, 또는 말이 정지하는 순간까지 유지되어야 한다. 동일 보법 내의 이행에서는 이행 사이에 같은 리듬과 율동감을 유지하면서 명료하게 그 차이를 보여야 한다. 말은 기승자의 주먹에 대해 가볍고 침착하고 올바른 자세를 유지해야 한다.

예를 들면 파사지(passage)[1]에서 피아페(piaffe)[2] 혹은 그 반대의 경우처럼 하나의 움직임으로부터 다른 움직임으로의 이행에 똑같이 적용한다.

1) 파사지(passage) 최대의 수축속보로 말 무릎의 위치가 거의 직각을 이룰 정도로 올라오도록 유도하는 운동

2) 피아페(piaffe) 제자리에서 약간씩 전진하는 최대 수축운동

6. 반정지(half halts)

모든 움직임 또는 이행은 눈에 띄게 표시가 나지 않을 정도의 반정지로 준비한다. 반정지란 기승자의 기좌와 다리, 주먹이 거의 동시에 작용하며, 운동 항목의 실시 혹은 보법이나 걸음을 하위 또는 상위로 이행하기 전에 말의 주의력과 균형감각을 높일 목적으로 사용된다. 체중을 좀 더 말의 후구 쪽으로 옮김으로써 후지의 내디딤과 후구의 균형이 개선되어 전체적으로 전구의 경쾌함과 말의 균형 유지에 도움을 주게 된다.

7. 방향 전환

방향 전환에서는 말이 그려야 할 선을 따라 몸을 굽히고, 어떤 반항도 나타내지 않으며, 걸음이나 리듬, 속도를 바꾸는 일 없이 유연성을 유지해 기승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방향 전환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할 수 있다.

① 정확한 각도로 회전하면서 방향 전환(코너 돌기)
② 짧은 대각선과 긴 대각선으로의 방향 전환
③ 답보변환이 포함된 반원운동
④ 하프 피루엣(half pirouette)과 후지 중심 회전
⑤ 만곡 사승 고리(serpenting loop)
⑥ 지그재그*로 왕복 발진 변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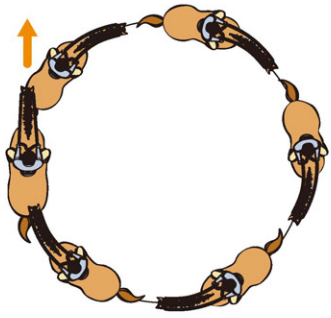
* 지그재그: 방향 변환을 수반하는 2회 이상의 하프 패스를 도입한 운동

방향 전환 전에 잠깐 마체를 똑바로(straight) 해야 한다.

8. 도형

마장마술 테스트에서 요구되는 도형이란 원운동, 만곡 운동, 8자 기승을 말한다.

1) 원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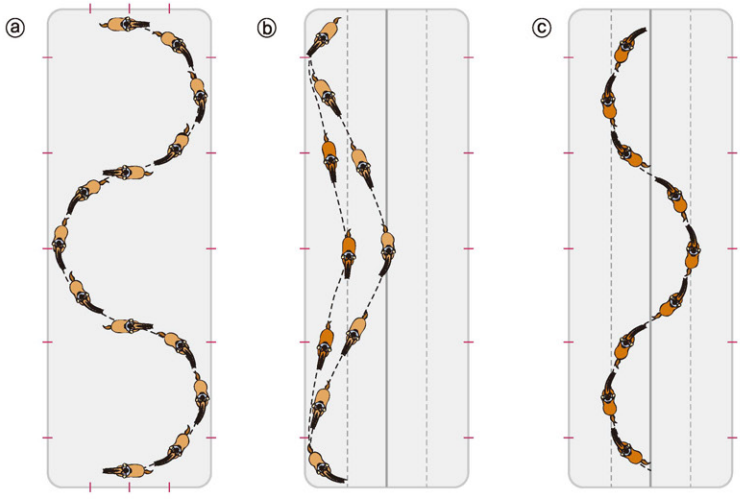
원운동은 지름이 6m, 8m, 10m 이하의 원에서 하는 운동을 말한다. 지름이 10m 이상인 원에서 하는 운동은 원형 기승(윤승, circle) 운동이라고 한다.

2) 만곡 운동

경기장의 긴 부분을 지나가는 여러 개의 고리로 연결된 만곡 운동은 직선으로 연결된 반원들로 구성된다. 중앙선을 가로지를 때, 말은 경기장의 짧은 면과 평행해야 한다(그림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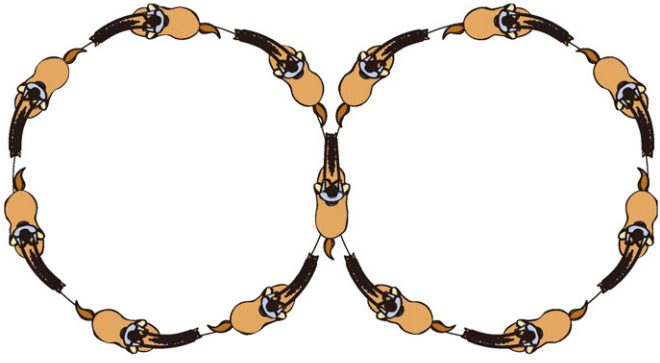
반원의 크기에 따라, 직선 연결은 길이에 따라 달라진다. 경기장의 긴 면에서 1개의 고리로 된 만곡 사승은 트랙에서 5m 또는 10m로 행해진다(그림 ⓑ).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는 만곡 사승은 1/4라인 사이에서 이뤄진다(그림 ⓒ).



3) 8자 기승

8자형은 똑같은 크기의 권승이나 원형 기승(윤승) 2개가 8자 모양의 중심에서 만나는 모양이다. 기승자는 도형 중앙에서 방향 전환을 하기 전에 잠깐 마체를 똑바로 해야 한다.



9. 사횡보(leg yielding)

▸ **사횡보의 목적**

말의 유연성과 측방에 대한 반응성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사횡보는 보통속보로 시행하며, 기승자가 안쪽으로 말의 속눈썹과 콧구멍을 간신히 볼 수 있을 정도로 말이 움직이는 방향에서 약간 벗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 똑바른 자세를 유지한다. 앞다리와 뒷다리 모두 안쪽 다리가 바깥쪽 다리 앞에서 넓게 교차된다.

사횡보는 수축운동의 준비 단계로, 나중에 더 향상된 '어깨를 안으로(shoulder in)' 운동을 하면서 사횡보를 하면 말의 걸음을 유연하고 부드러우며 자유롭게 바꿀 수 있고, 신축성을 높여 경쾌하고 무리 없이 조화로운 운동을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

사횡보는 '사선상'에서 할 수 있지만, 그럴 경우에는 말의 전구가 후구보다 약간 선행해야 하며 마체는 최대한 경기장의 긴 부분과 평행해야 한다. 이는 '벽을 따라서'도 행할 수 있는데, 이 경우 마체가 진행 방향에 대해 약 35° 각도가 된다.

10. 측방운동

▸ **측방운동의 목적**

사횡보를 제외하고 후구의 움직임을 향상시키고 후구를 높여 수축도를 향상시키는 것이다.

측방운동에는 '어깨를 안으로(shoulder in)', '허리를 안으로(travers)', '허리를 밖으로(renvers)', '하프 패스(half pass)'가 있는데, 모든 경우에 말은 약간 구부린 상태에서 움직인다. 앞다리와 같은 쪽 뒷다리는 다른 제적 위를 진행하게 된다. 운동의 리듬이나 흐름, 균형을 저해하지 않도록 지나치게 구부리거나 턱을 굴요시켜서는 안 된다.

측방운동은 항상 부드럽고 단정한 발걸음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추진력을 유지하면서도 유연성과 율동감을 유지하고 균형 잡힌 움직임을 나타내야 한다.

알아두기

간혹 기승자가 마체의 구부림(bending)과 옆으로 미는 동작(pushing sideway)에 너무 집중하면 종종 추진력이 상실되므로 주의한다.

1) 어깨를 안으로(shoulder in)

'어깨를 안으로'는 수축속보로 실행한다. 기승자의 안쪽 다리를 축으로 말의 몸이 안쪽으로 30° 정도 벤딩되며 이행 시 일정한 율동감을 유지한다. 말의 안쪽 앞다리는 바깥쪽 앞다리 앞을 교차해서 나아가고, 안쪽 뒷다리는 안쪽 엉덩이를 낮추면서 바깥쪽 앞다리와 일직선이 되도록 내디딘다. 말은 진행 방향과 반대로 마체를 구부린다.

2) 허리를 안으로(travers)

▸ **'허리를 안으로'의 목적**

직선상에서 유연한 수축속보 운동과 정확한 구부림을 보여주기 위함이다. 앞다리와 뒷다리는 교차하고, 균형과 율동감을 유지한다.

'허리를 안으로'는 수축속보 혹은 수축구보로 실행한다. 마체는 기승자의 안쪽 다리를 축으로 약간 휘는데, 그 정도는 '어깨를 안으로'보다 깊다. 약 35°의 일정한 각도를 보인다(정면 또는 배후에서 보면 네 발굽 흔적이 나타난다). 앞다리는 제적 위에 있고, 후구(엉덩이)가 안쪽으로 들어온다. 말의 바깥쪽 다리는 안쪽 다리의 앞을 통과하여 교차한다. 말은 진행 방향으로 마체를 구부린다.

'허리를 안으로'가 되려면 후구가 제적에서 떨어지거나, 혹은 모서리 통과 또는 원형 기승을 행한 후에 제적으로 돌아가지 않아야 '허리를 안으로'를 시작할 수 있다. '허리를 안으로'를 끝낼 때는 원형 기승을 끝내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정수리 및 경부를 반대쪽으로 굽히지 않은 채) 후구가 제적으로 돌아온다.

3) 허리를 밖으로(renvers)

▸ **'허리를 밖으로'의 목적**

'어깨를 안으로'보다 더 구부린 상태에서 직선상에서 유연한 수축속보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앞다리와 뒷다리는 교차한 채 균형과 율동감을 유지한다.

'허리를 밖으로'는 '허리를 안으로'와는 반대인 운동이다. 앞다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는 대신에 후구는 제적 위에 남는다. '허리를 밖으로'를 끝낼 때는 앞다리와 후구가 일직선상에 있어야 한다. 그 이외에는 '허리를 안으로'에 적용한 원리와 조건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마체는 기승자의 안쪽 다리를 축으로 약간 구부린다. 말의 바깥쪽 다리는 안쪽 다리 앞을 통과하여 교차하고, 말은 진행 방향으로 마체를 구부린다.

4) 하프 패스(half pass)

하프 패스는 '허리를 안으로'의 변형이고, '벽을 따라서'가 아니라 사선상에서 실시한다. 이것은 수축속보[및 자유연기의 파사지(passage)] 혹은 수축구보로 실행한다. 말은 진행 방향을 향하고, 기승자의 내방 다리를 축으로 하여 살짝 몸을 휘게 해야 한다. 말은 이 운동 전체를 통해 같은 율동감과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어깨의 가동성을 높이고 좀 더 자유로운 움직임을 요구하려면 추진력을 유지하고, 특히 내방 후지

의 추종을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마체는 마장의 긴 제적에 거의 평행이고, 전구는 후구에 약간 선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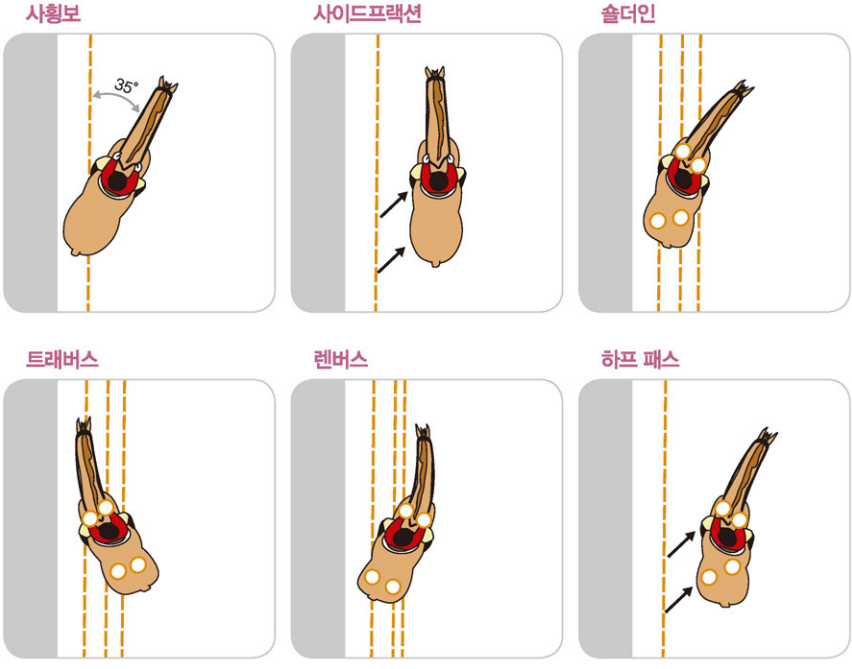
속보에서는 외방 다리가 내방 다리의 앞을 교차한다. 구보에서 이 운동은 전방과 측면으로 향하면서 일정한 보폭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 **속보 하프 패스의 목적**

'어깨를 안으로'보다 깊이 휜 각도를 가지고 사선상에서 활발한 수축속보 운동을 나타낸다. 전지 및 후지는 교차하고 균형과 율동감이 유지된다.

▸ **구보 하프 패스의 목적**

리듬, 균형, 유연성 및 벤딩에 대한 순종성을 상실하는 일 없이 전방 및 측방에 대한 활발한 움직임으로 구보의 수축과 유연성을 높이고 발달시키는 데 있다.



이상으로 경주퇴역마의 승용 전환 순치를 위한 기본적인 조련 단계를 살펴보았다. 경주퇴역마는 전환 조련을 통해 전력질주에 필요한 순간적인 에너지 소모가 아니라 완만하고 지속적으로 에너지를 배분해서 쓰는 것을 배운다. 승용마로 조련하는 데 있어서 더러브렛은 달리지 않도록, 웜블러드는 달리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경마를 경험해보지 않은 더러브렛은 웜블러드와 비슷하게 접근할 수 있지만, 말마다 특성이 다르므로 순치방법은 개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또한, 승마용 말은 기승자의 과도한 부조에 대한 적응력(내성)을 키우는 조련과 돌발 상황, 극한 상황에 놀라지 않는 조련도 필요하다.

알아두기

- 일본의 승마장 프랜차이즈를 운영하고 있는 크레인의 경우 1년에 270두의 경주퇴역마를 구매하여 1년 안에 230두를 강습에 투입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선별된 말이라도 순치과정에서 약 15%는 승용마 전환에 실패한다고 한다. 강습용 말은 평일 2~3회, 주말 4회 정도로 한 달 평균 75회 정도 강습에 활용하며, 동물보호 차원에서 한 달에 100회를 넘지 않도록 운영되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는 한 해에 1천 두가 넘는 경주퇴역마가 발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승마용으로 유통되기도 한다. 승마가 활성화되면서 승마용 말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고 있으며, 이와 더불어 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시점에서 일본의 경주퇴역마 승용 전환 순치조련 방법을 참고하여 국내 경주퇴역마의 승용 전환 기술을 보급코자 했다. 그러나 말의 조련은 조련자에 따라 기술과 방법이 다르고 말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이뤄져야 하므로 일률적으로 적용될 수 없음을 밝혀둔다.

경주퇴역마
승용전환조련
표준화 매뉴얼

부록

- BRT 대회 개요
- BRT 대회 규정(2018년 기준)



1. BRT 대회 개요

경주퇴역 승용마 안전성 및 능력 평가대회[이하 'BRT 대회'로 약칭한다. BRT는 '우수 경주퇴역마(Best Retired Thoroughbred)'의 약자]는 2016년도에 한국에서 독창적으로 창설된 대회로, 경주퇴역마를 승용마로 전용하고 있는 일본에서도 도입하려 하고 있다.

▸ 참가자격

경주퇴역 후 24개월 이내, 승용마로 등록된 더러브렛

▸ 안전성 능력 평가대회 각 항목별 내용(2018년)

항목	평가 사유	평가 내용	배점	소요시간
마체상태	컨디션	피모, 컨디션, 활기	3	6분
침착성	안전성	각목 장애물 넘기, 뒤로 움직이기, 스프레이 뿌리기, 우산 펼치기, 공 굴리기, 풍선 올리기, 천막 밟기, 매달린 장애물 통과, 도움 없이 기승하기	47	
마장마술	안전성 및 능력	6개 코스	30	6분
장애물	능력 평가	70㎝ 이하 장애물 3개	20	
합계			100	

▸ 인증제도

우수마 BRT 마크로 인증 및 등록 홈페이지에 결과 등재

▸ **대회상금**

1회 4,000만 원

구분	1등	2등	3등	4등	5~7등	BRT 획득마	합계
상금 (만 원)	800	600	500	400	각 300	총 800	4,000

- 해당 대회에서 4위 이내 입상 시 이후 BRT 대회에 출전하지 못함

  ※ 단, 상금을 미수득했다면 출전 가능

- 대회를 주관하는 한국마사회에서 출전하는 말은 공정성을 위해 순위 상금 미지급

  ※ 상금 미수득으로 이후 대회 출전 가능

▸ **경매시행**

- 경매방법
  - 참가마 중 판매희망마의 매매장터 시행
  - 대회 중 1회, 대회 종료 후 1회로 총 2회 시행
- 경매조건

  구매자 수송비 지원: 30만 원(세금공제 후 지급)

2. BRT 대회 규정(2018년 기준)

의의

본 대회는 경주퇴역 승용마의 안전성과 능력을 평가하는 대회로서, 경주퇴역마를 승용으로 활용 시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경주마에서 은퇴 후 활용도를 높여 말 자원의 재활용, 동물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다.

주최 및 주관

한국마사회(렛츠런팜 장수)에서 주관하고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후원한다.

대회 운영위원회

대회 진행 시 발생하는 주요 사항에 대해 결정한다.

운영위원회는 심판 중 6인을 선정하여 1명의 위원장과 5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의사결정은 다수결로 정한다.

일정

아래의 일정으로 시행한다.

구분	3차 대회	4차 대회	5차 대회
대회일	2017. 9. 14(목)	2017. 11. 3(금)	2018. 10. 19(금)
장소	영천 운주산승마장	함안군 승마장	구미시 승마장
평가 두수	50두 이상	50두 이상	60두 이상
관련 생체대회	9월 15~17일, 영천대마기 전국 종합마술대회	11월 4~5일 함안아라가야 전국 승마대회	구미시장배 전국승마대회

경기시간

아래의 시간으로 시행한다.

08:30~09:00	09:00~12:00	12:00~13:00	13:00~16:00	대회 후
개회식 및 경로답사	오전 경기	중식	오후 경기 및 시상식	경매시행

말 참가자격

서울과 부산경마장에서 퇴역한 말로 대회일 기준 최종 퇴사 후 2년 이내이다.

- 개인이나 승마장에서 활용하는 말 모두 참가 가능하다.

- 신청 시 한국마사회 말등록원에 승용으로 등록되어야 한다.
- 만약 1개 대회 출전 신청마가 모집 수보다 많으면 퇴역 후 기간이 덜 경과한 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 말은 인플루엔자 6개월 이내, 일본뇌염과 선역은 1년 이내의 접종 증명을 갖추어야 한다.
- 말 입사 규정은 일반 대회와 동일하게 하며, 청소료와 사료, 깔짚 비용은 개인이 부담한다.

참가신청

참가신청은 정해진 신청서 양식을 활용한다. [부록 '신청서' 참조]

수의 및 도핑

참가 말의 컨디션이 나쁘거나 파행을 보이는 등 이상이 있는 경우 수의위원은 출전 제외를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말의 상태가 비정상적이라 판단되면 도핑검사를 할 수 있다. 도핑은 5위까지 실시하며, 방침은 타 대회의 규정에 따른다.

심판 및 진행인력

필요한 심판의 수는 렛츠런팜 장수와 대한승마협회에서 선정한다.

- 인력 배치 예(당일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구분	심판 운영수	비고(진행인력)
침착성	2명	5명
마장마술	2명	1명
장애물	2명	1명
마체검사	수의위원 1명	시간, 녹화, 점수집계 등 3명
합계	7명	10명

핸들러 및 기승인

- 대한승마협회 회원(선수) 등록을 필한 자, 마주, 스포츠 지도자(승마) 2급 이상, 농림부나 KRA에서 자격을 부여한 승마지도사나 말 조련사로 한다.
- 평가에 참가하는 말의 핸들러는 안전모, 안전화, 장갑 등 보호 장구를 갖춰야 한다.
- 침착성 평가 핸들러와 마장마술, 장애물 코스에서의 기승인은 동일해야 한다.

재출전 대회에서 5등 이하인 말은 차기 대회에 출전 가능하다. 만약 4등 이내로 입상을 하였지만 상금을 미수령하면 차기 대회에 출전이 가능하다

- 만약 대회 출전 신청마가 예정 두수를 초과하면 미출주한 신규 출전마를 우선으로 선정한다.

코스 평가항목은 마체 상태, 침착성 평가와 마장마술, 장애물로 구성한다.

대회시간 마장마술과 장애물을 합하여 최대 소요 시간은 6분이다.
6분 초과 시 실격 처리한다.

평가항목 아래의 항목은 평가의 예이며, 대회 시 다소 변경이 가능하다.

가. 침착성 평가항목과 방법

항목	보행 상태	설명	감점 기준
1. 횡목 장애물 넘기	평보	바닥에 횡목을 마름모로 깔고 넘게 한다.	▸ **말의 동요도에 따라 감점** • 눈에 띄게 머리나 몸통의 움직임이 없으면 만점 • 현저한 머리 움직임: −1 • 현저한 몸통 움직임: −2 • 옆이나 뒤로 움직임: −3 • 옆이나 뒤로 약 1마신 이상 크게 움직임: −4 • 2회 거부 시: −5
2. 뒤로 움직이기	정지	재갈고삐를 밀어서 뒤로 움직이기	
3. 스프레이 뿌리기	정지	말의 목, 가슴, 복부를 좌우측 순으로 30㎝ 이격하여 1회씩 뿌린다.	
4. 우산 펼치기	평보	약 5m 앞에서 우산을 2회 펼치며, 우산과 5m 거리로 지나간다.	
5. 물웅덩이 건너기	평보	약 1×4m 크기의 바닥에 있는 물웅덩이를 밟고 지나게 한다.	
6. 컴프레서 소리듣기	평보	컴프레서 바람소리를 2~3회 듣게 한다.	
7. 풍선올리기	평보	약 5m 앞에서 여러 개의 풍선을 2~3회 올리고 내린다.	
8. 매달린 장애물 통과	평보	2m 이하 높이에 매달린 리본 사이 통과	
9. 도움 없이 기승하기	정지	발판으로 제3자의 도움 없이 기승하기	

- 마장은 약 20~40m 크기에 평가항목을 배열하고 시행한다.
- 말은 장안을 하여 기승할 수 있는 상태로 하며, 핸들러는 고삐를 재갈에 물려 말을 리드한다.
- 말에게 차안대나 특수 재갈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장구는 사용할 수 없다.
- 평가 예시

1. 횡목 장애물 넘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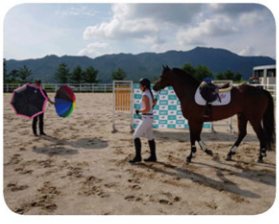
2. 뒤로 움직이기



3. 스프레이 뿌리기



4. 우산 펼치기



5. 물웅덩이 건너기



6. 컴프레서 소리 듣기



7. 풍선 올리기



8. 매달린 장애물 통과



9. 도움 없이 기승하기



나. (마장마술) 6개 코스로 구성

- 6개의 기본 코스로 구성되며, 평가 기준은 일반 마장마술 경기와 동일
- 침착성, 균형감, 리듬, 충동 자제력, 직진성 평가

다. (장애물) 70㎝ 이하 장애물 3개

- 70㎝ 이하의 장애물 3개로 구성되며, 평가 기준은 일반 장애물 경기와 동일

평가

침착성 평가를 진행하는 동안 말은 핸들러에게 집중하면서도 조용하고 기꺼이 협력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즉, 말은 핸들러에게 구속받지 않으면서도 열심히 그리고 주의 깊게 핸들러 옆을 걸어야 한다.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동 예시]

- 말을 진정시키거나 강제적으로 과제를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핸들러가 고삐를 이용하여 명확하게 말에게 영향을 미칠 경우
- 스프레이 뿌리기 시 말의 눈을 가리거나 보정 시
- 말이 표시된 리딩 경로를 이탈했을 경우
-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큰 소리나 과잉행동으로 지시했을 때만 말이 움직일 경우

[채점]

- 각 과정상 지정된 심판이 채점한 것을 평균한다.
- 이의 신청에 의한 재평가의 진행 여부와 최종 판정은 항목별 심판 2/3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배점과 평가표 마체 상태와 침착성 항목의 배점과 내역

구분		배점	점수		득점
			최고	최저	
마체 상태(피모, 생동감, 컨디션 등)		3	3	1	
침착성 평가 침착성 평가	1. 횡목 장애물 넘기	5	5	0	
	2. 뒤로 움직이기	5	5	0	
	3. 스프레이 뿌리기	5	5	0	
	4. 우산 펼치기	5	5	0	
	5. 물웅덩이 건너기	5	5	2	
	6. 컴프레서 소리듣기	5	5	2	
	7. 풍선올리기	6	6	0	
	8. 매달린 장애물 통과	6	6	2	
	9. 도움 없이 기승하기	5	5	0	
	계	50			

※ 마장마술과 장애물의 배점은 붙임의 심사지 참고

상금 포상은 렛츠런팜 장수에서 마주에게 직접 지급한다.

1등	2등	3등	4등	5등	BRT 획득마	계
8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총 1,400만 원	4,000만 원

- BRT 대회 참가 독려 및 BRT 마크 획득을 축하하기 위한 특별상 지급(1,400만 원): 총 1,400만 원의 부가 상금으로 BRT를 획득한 말 중에서 6등부터 나누어 지급
  - BRT 마크 획득마가 25두이면, 6~25등에게 1,400만 원을 균분 지급, 800만 원/17두 = 82만 4천 원
- 동점인 경우 상금은 균분하며, 만약 상금 포기마가 생기면 차순위에게 지급: 5위가 포기했을 경우 6위에게 300만 원 지급
- 상금은 세액을 공제한 후 지급한다.

인센티브 경주 퇴역 후 6개월 이내의 말은 평가 결과에서 3점의 가점을 부여하여 포상과 등급 조정을 실시한다.

결과공지 대회 결과 80점 이상은 해당 말의 패스포트상 BRT(Best Retired Thoroughbred) 마크를 부여하며, 말 등록 홈페이지에도 결과를 공지한다.

실격 대회 진행에 중대한 방해를 하거나 부정이 있으면 실격 처리한다. 아래의 사항에 해당 시에도 실격 처리한다.

- 수의위원이 판단하여 리듬이 부정확하거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은 말
- 핸들러의 영향력이 부족하여 핸들러, 말, 제3자의 위험이 명확히 인정될 경우
- 승마 정신에 어긋나는 행동, 말이 가진 능력 이상의 성과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행동, 말에 대한 부적절한 체벌
- 규정 위반, 말이 도망칠 경우
- 최대 시간인 6분을 초과할 경우

조건의 변경 상기 조건은 대회의 발전적인 개최를 위해 필요 시 변경이 가능하며, 평가항목과 조건도 대회일까지 변경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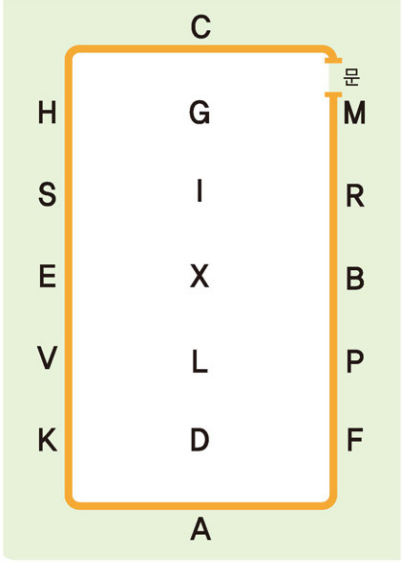
기타 상기에 정해진 내용 외의 대회 규정은 KEF/FEI 규정, 공인승마대회 및 수의 규정에 의거하여 실시한다.

[경주퇴역 승용마 안전성 및 능력 평가대회 코스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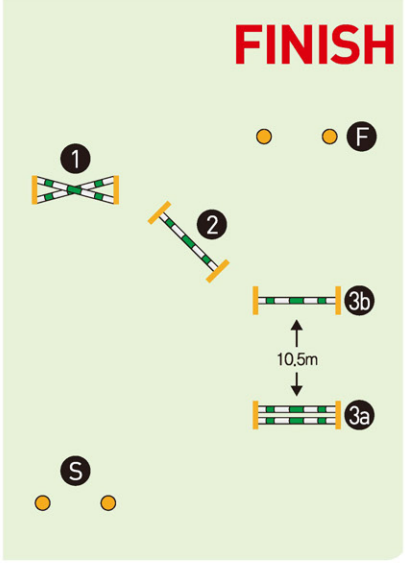
1 침착성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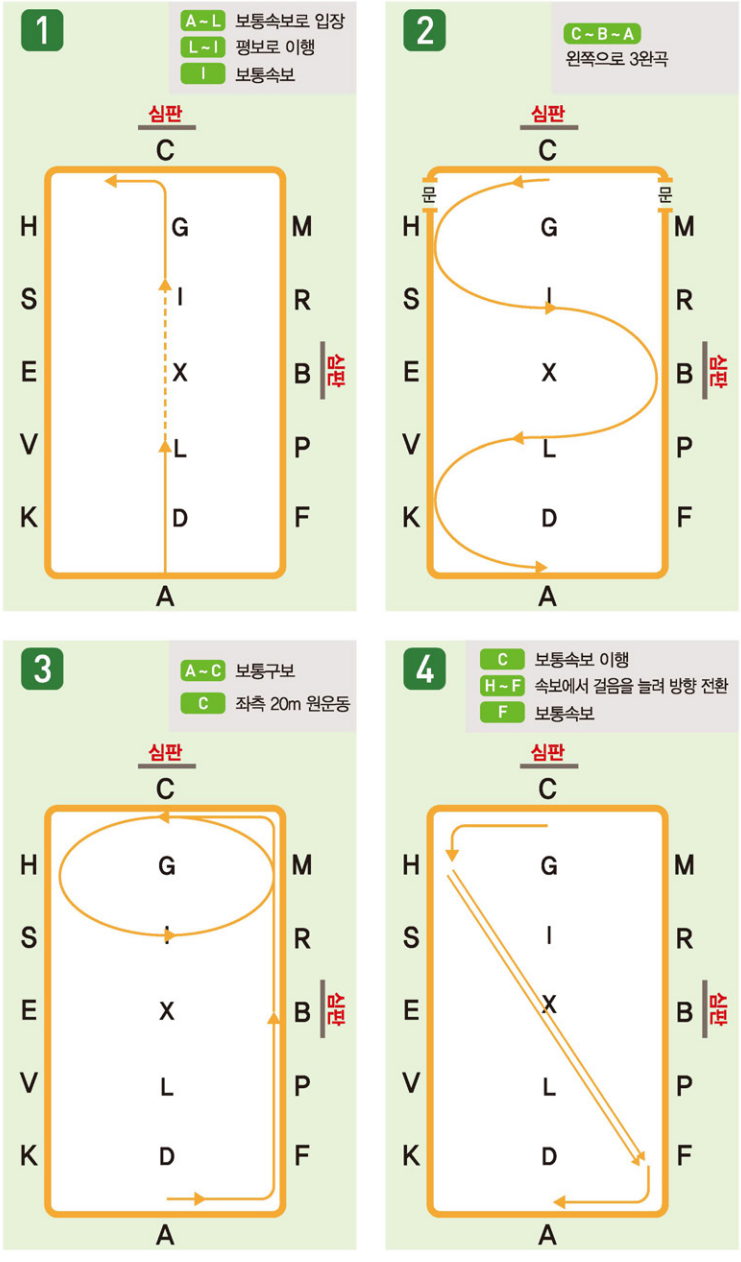
2 마장마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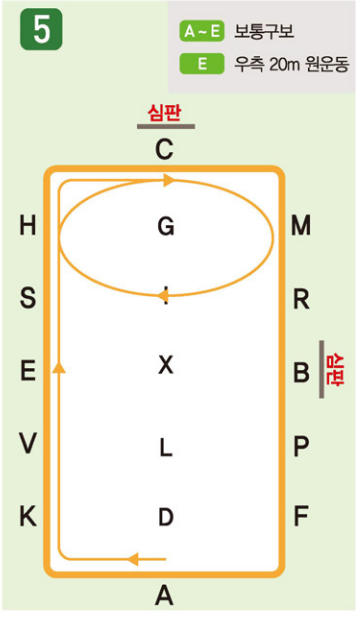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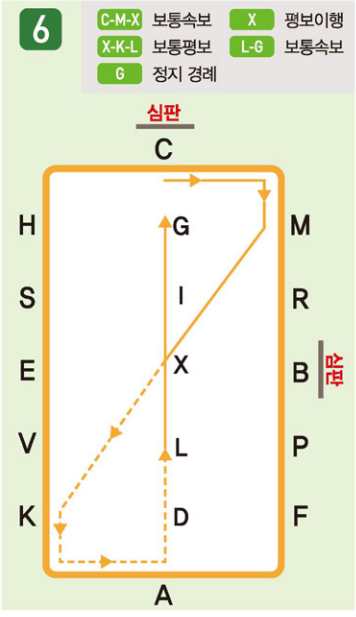
3 장애물



[경주퇴역 승용마 안전성 및 능력 평가대회 코스도]




5
A~E 보통구보
E 우측 20m 원운동
심판
C
H
S
E
V
K
G
I
X
L
D
M
R
B
P
F
A
관람


6
C-M-X 보통속보
X-K-L 보통평보
G 정지 경례
X 평보이행
L-G 보통속보
심판
C
H
S
E
V
K
G
I
X
L
D
M
R
B
P
F
A
관람

[2018년도 경주퇴역 승용마 안전성 및 능력평가(BRT)대회 시행 공고문]

'18년도 경주퇴역 승용마 안전성 및 능력평가(BRT)대회 시행 공고

1. 일시 및 장소

구분	5회 대회	비고
일시	'18. 10. 19(금)	대회 일정은 변동 가능
참가 두수	60두 이상	
장소	구미시 승마장	

※ 승마대회 연계 개최를 추진 중이나, 불가 시 단독 대회 추진 예정

2. 참가자격: 최종 퇴사 후 24개월 이내, 승용마로 등록된 더러브렛

3. 평가항목: 마체검사, 침착성, 마장마술, 장애물

4. 상금: 총 4,000만 원

구분	1등	2등	3등	4등	5등	BRT 획득마	계
상금	800만 원	600만 원	500만 원	400만 원	300만 원	총 1,400만 원 배분	4,000만 원

5. 평가 항목별 내용

항목	평가 사유	평가 내용	배점	소요시간
마체상태	말 컨디션 평가	피모, 컨디션, 활기	3	6분
침착성	말의 안전성	횡목 장애물 통과, 뒤로 움직이기, 스프레이 뿌리기, 우산 펼치기, 리버풀(물웅덩이) 건너기, 소리(컴프레서) 듣기, 풍선 올리기, 매달린 장애물 통과, 도움 없이 기승하기	47	
마장마술	안전성 및 능력	6개 과목	30	
장애물	능력 평가	70㎝ 이하 장애물 5개	20	
합계			100	

6. 참가마 경매 시행

- BRT 참가마 경매 시행: BRT 대회 후 입찰식 경매 시행

7. 접수 및 문의

- 접수기간: 2018. 8. 30(목) 10:00~9. 7(금) 17:00
- 접수처: 마앤피플(전화 02-589-2576, 이메일 showjumping@hanmail.net FAX 02-589-2579)

※ 대회 시행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BRT대회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관: 한국마사회 장수목장

[2018년도 BRT대회 참가신청서]

대 회 참 가 신 청 서

대 회 명		제5회 경주퇴역 승용마 안전성 및 능력 평가		
구 분		1	2	3
참가 마명				
핸들러 (기승자)		이름: 전화:	이름: 전화:	이름: 전화:
마 주 명				
승용 마번				
경주마 시 마명				
경주 마번				
마이크로칩 번호				
경마장 최종 퇴사일				
퇴사 후 경과 월일 (대회일 기준)				
백신 접종일	인플루엔자			
	선역			
	일본뇌염			
신청서 작성자			연락처:	

본인은 본 대회에서 정한 경기규칙을 엄수하고 심판 및 진행원의 지시에 순응하며 대회 중 발생한 본인의 (말 포함) 일체의 사고에 대해 그 책임을 본인이 부담할 것을 서약하며 상기와 같이 출전 신청을 합니다.

상기와 같이 출전 신청을 합니다.

2018. . .

한국마사회장 귀하

KHIS 말산업 표준화 매뉴얼 제작에
참여하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강지영, 견윤미, 공경희, 김용석, 김지혜, 나성안, 문윤영, 박태묵, 박한솔, 오원석, 유근창,
유병돈, 이경주, 이명래, 이용우, 이진우, 장중길, 정광섭, 정외옥, 최종필, 최현주

KHIS

Korea Horse Industry Standard

매뉴얼 오류나 첨삭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아래 연락처로 의견을 보내 주세요.

매뉴얼 제목 :

건의 내용 :

문의: 한국마사회 승마진흥부

E. kra1053@kra.co.kr

KHIS
말산업 표준화 매뉴얼
시리즈 - 09

Korea Horse Industry Standard

경주퇴역마 승용전환조련

비매품

03490
9 788956 544878
ISBN 978-89-5654-487-8

한국마사회